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8월

박사학위 논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현 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

-또래의 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A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Mediating Effects of Peer Communication & Career Identity -

2019년 8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현 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박 희 서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현 주

김현주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호남대학교	교수	吳世胤(인)	
위원	호원대학교	교수	裴点模(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眞淑(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丁誠拜(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朴喜緣(인)	

2019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삶의 만족도	5
1. 삶의 만족도의 의의	5
2. 삶의 만족도의 주요이론	6
3.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	15
제2절 공동체의식	17
1. 공동체의식의 의의	17
2.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	18
제3절 또래의사소통	20
1. 또래의사소통의 의의	20
2. 청소년 또래의사소통의 영향요인	21
제4절 진로정체감	22
1. 진로정체감의 의의	22
2. 청소년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	24
제5절 주요변수들의 관계	26

1. 공동체의식과 또래의사소통 및 삶의 만족도	26
2.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 및 삶의 만족도	27
3. 선행연구의 평가	28
제 3 장 연구 설계	34
제1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34
1. 잠재성장모형	34
2. 연구모형	42
3. 연구가설	45
제2절 분석대상 및 자료	48
제3절 측정도구	49
1. 삶의 만족도	49
2. 공동체의식	50
3. 또래의사소통	51
4. 진로정체감	52
제4절 자료의 분석방법	53
1. 분석절차	53
2. 자료처리방법	54
제 4 장 실증분석	58
제1절 연구대상의 특성	58
1. 표본의 특성	58
2. 변수의 기술통계	58
3. 변수간 상관관계	61
제2절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 설정과 성장변화	61
1. 삶의 만족도	63

2. 공동체의식	65
3. 또래의사소통	67
4. 진로정체감	69
제3절 다변량잠재성장모형 분석	71
1.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	71
2.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73
3.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 매개효과	75
4.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 간 비교	85
제4절 연구결과와 논의	95
1.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 설정과 성장변화	96
2. 다변량잠재성장모형	99
3.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 매개효과	103
4.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 간 비교	108
제 5 장 결 론	11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11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113
1. 이론적 시사점	113
2.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실천적 시사점	114
3. 정책적 시사점	115
제3절 향후 연구방향	116
참고문헌	118
부록	137

표 목 차

<표 2-1> 국내 패널데이터 활용 선행연구	30
<표 3-1> 삶의 만족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49
<표 3-2> 공동체의식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50
<표 3-3> 또래의사소통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51
<표 3-4> 진로정체감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52
<표 4-1> 삶의 만족도의 기술통계	59
<표 4-2> 공동체의식의 기술통계	59
<표 4-3> 또래의사소통의 기술통계	60
<표 4-4> 진로정체감의 기술통계	61
<표 4-5>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62
<표 4-6> 삶의 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63
<표 4-7> 삶의 만족도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64
<표 4-8> 공동체의식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65
<표 4-9> 공동체의식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67
<표 4-10> 또래의사소통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67
<표 4-11> 또래의사소통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68
<표 4-12>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69
<표 4-13> 진로정체감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70
<표 4-14>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 지수	73
<표 4-15>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74
<표 4-16>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76
<표 4-17>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77
<표 4-18>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79
<표 4-19>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과 유의성 검증	80
<표 4-20>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81
<표 4-21>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82
<표 4-22>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84

<표 4-23>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85
<표 4-24>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	86
<표 4-25> 집단별 형태동일성 적합도 지수 비교	88
<표 4-26> 절편의 평균동일성 적합도 지수 비교	90
<표 4-27> 기울기의 평균동일성 적합도 지수 비교	91
<표 4-28> 경로동일성 적합도 지수 비교	93
<표 4-29> 경로동일성 제약모형의 집단비교 유의성검증 결과	94
<표 4-30> 연구문제 1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98
<표 4-31> 연구문제 2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101
<표 4-32>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검증 결과	104
<표 4-33>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검증 결과	106
<표 4-34> 연구문제 3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107
<표 4-35> 연구문제 4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110

그림 목 차

<그림 2-1> 삶의 만족에 대한 상향이론	7
<그림 2-2> 삶의 만족에 대한 하향이론	8
<그림 2-3> 삶의 만족에 대한 통합적 설명모델	9
<그림 3-1> 잠재성장모형에서의 무변화모형	37
<그림 3-2>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일차함수변화모형	37
<그림 3-3> 잠재성장모형에서의 다차함수변화모형	38
<그림 3-4> 매개효과의 기본모형	41
<그림 3-5> 다변량잠재성장 연구모형	44
<그림 4-1> 삶의 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64
<그림 4-2> 공동체의식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66
<그림 4-3> 또래의사소통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68
<그림 4-4>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70
<그림 4-5>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	72
<그림 4-6>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	76
<그림 4-7> 진로정체감 매개모형	81
<그림 4-8> 형태동일성 검증모형 A	87
<그림 4-9> 절편의 평균동일성 검증모형 B	89
<그림 4-10> 기울기의 평균동일성 검증모형 C	91
<그림 4-11> 경로동일성 검증모형 D	92
<그림 4-12> 또래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104
<그림 4-13>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106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Mediating Effects of Peer Communication & Career Identity -

Hyun-Joo, Kim

Advisor: Prof. Hwie-Seo Park,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 community consciousness, life satisfaction, peer communication, career identity and gender difference. For the analysis, the data of 1989(male 1008, female 981) from the middle school grade 1 panel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from Year 3(middle school grade 3) through to Year 6(high school grade 3) were used, for which a Longitudinal Latent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The analysi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re was a variation among the students to the initial status of life satisfaction, community consciousness,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and the status showed stable changes. Except for community consciousness,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nitial status and the growth change rate of life satisfaction,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the adolescents with higher initial

status tended to show a slower growth change rate, whereas those with lower initial status showed a rapid growth change rate.

Second, the analysis found a positive correlation effect of the initial status of community consciousness on that of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and a positive correlation effect of the initial status of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at of life satisfaction. This suggested that the middle school grade 3 students with a higher community consciousness tended to have a higher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and students with a higher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tended to have a higher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also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effect of the growth change rate of community consciousness on that of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and a positive correlation effect of the growth change rate of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at of life satisfaction. This implied while students grow from the middle school grade 3 to the high school grade 2, the higher the growth change rate of community consciousness was, the higher that of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was, and so was that of life satisfaction.

Third, the study found following mediation effect of adolescent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in between adolescent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initial status of peer communic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in between that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hat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growth change rate of peer communic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in between that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hat of life satisfaction. The initial status of career identity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in between that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hat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growth change rate of career identity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in between that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hat of life satisfaction.

Fourth, the results found a significantly($P < .01$) different effect of the initial status of community consciousness on that of career identity between the two genders.

Keywords:

Adolescents, Longitudinal Study, Life Satisfaction, Community consciousness, Career Identity, Peer Communication, Latent Growth Model,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Mediating Effect, Comparative Study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한국의 청소년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과 가치관 혼란으로 인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에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왔고, 이런 청소년 문제는 종종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하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학업, 진로, 정신건강 등으로 상담한 사례는 5년 전과 비교해 38%나 증가하였다(아시아경제, 2019).

또한, 2018년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문화체육관광부, 2018) 대부분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높은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임종필, 2017; 김윤희·김현숙, 2016)와 일맥상통한다.

청소년들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자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삶의 만족은 개인을 둘러싼 내적·외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되며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할 수 있는데(Diener & Fujita, 2005)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이후 청소년 수련시설을 비롯해 학교와 지역 그리고 기업이 협력하여 청소년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들이 호응을 받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견인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감 형성시기이며 또래 관계가 밀접한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미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공동체의식과 함께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을 들 수 있다.

또래관계는 가족관계와는 다른 성질의 관계로(Furman & Buhrmester, 1992),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청소년 시기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시기와 비교하여 더 크다(Yim & Hibbard, 1996). 예를 들면, 또래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할 경우 상호작용이 결핍되어 불안감과 우울함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어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Sullivan, 1953) 원만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또래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윤희·김현숙, 2016). 더불어 청소년 시기는 자아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정체감이 형성되어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고 삶의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진로정체감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장변화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한 시점에서의 영향력을 살펴본 횡단연구들이 대부분으로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간 관계를 살펴는 종단연구는 미비하였다. 공동체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선경(2018)은 횡단연구를 통해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한계점으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횡단연구는 특정한 시점에서의 변수들 간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으나 다시점의 영향력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종단연구는 개인과 집단의 성장발달과 변인들 간 변화 및 인과관계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홍세희,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횡단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에 대한 각각의 변화와 영향력 및 상호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경험적 특성과 상황적 원인 등 다양한 환경이 통합되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통합모델에 근거하여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으로 진로정체감을 선정하고, 외적요인으로 또래의사소통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또래의사소통의 매개

효과와 집단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각각의 종단적 성장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각각의 성장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성장변화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4. 공동체의식이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에,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매개효과와 성별에 따른 집단비교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1자료 3차년도(2012년), 5차년도(2014년), 6차년도(2015년)의 3개년 패널 데이터자료 중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의 문항에 모두 응답한 198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분석을 위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종단매개효과분석을 위해 청소년의 개인내적요인으로 또래의사소통을 선정하여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넷째, 종단매개효과분석을 위해 청소년의 개인외적요인으로 진로정체감을 선정하여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집단비교를 위해 청소년을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고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영향정도가 남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매개효과와 집단비교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3.0과 AMOS 23.0을 활용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증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들을 결정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성의 Cronbach'α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각 변수들의 성장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 별 적합도 검증을 거치고 난 후 최종적인 잠재성장모형을 결정하였다. 넷째, 결정된 잠재성장모형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와 변화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매개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붓스트랩을 적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의 간접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성별 집단 비교를 위해 형태 동일성 검증, 절편의 평균 동일성 검증, 기울기의 평균 동일성 검증, 경로 동일성 검증을 순서대로 실시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1. 삶의 만족도의 의미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에 대한 스스로의 개인적 평가로(Diener & Diener, 1995) 매일 생활 활동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고 목적을 성취하며 낙천적인 태도 및 감정을 유지하는 것(Neugarten et al., 1961), 자신의 삶 전체를 고려한 전반적인 판단(Diener, 1994), 다양한 자신의 삶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Huebner, 2004), 다양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정도의 인지적 평가 및 현재까지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Fujita & Diener, 2005) 등으로 정의 내린다.

국내의 연구들 또한 삶의 만족도를 자신이 즐겁고 희망적이며 스트레스와 고민이 적은 상태로 스스로 느끼는 행복한 상태(김신영 등, 2006),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는 정도와 정서적인 행복감이 포함되는 것으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으로 표현하였다(황재원 · 김계현, 2009).

이처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Diener, 1984). 첫째, 외적 기준과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소득이나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기준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개념이다. 둘째,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개념이다. 셋째는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의 심리상태가 우세한 정서적 측면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현대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개념이다.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관적인 느낌과 평가(김남정·임영식, 2012)에 의해 사는 게 즐겁고 희망적이며 스트레스와 고민이 적은 상태로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다(최미원, 2017).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2018년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2개국 가운데 22위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개인내적 요인과 환경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상태(Fujita & Diener, 2005)이므로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정, 환경 등의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조성연·김혜원·김민, 2011).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란 전반적으로 ‘삶이 즐겁고 안정되며 행복하다’는 긍정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한다.

2. 삶의 만족도의 주요이론

사회과학에서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삶의 질(Quality of Life), 행복(Happiness), 주관적인 안녕(Subjective Well-being)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하여 왔다(황매향·최희철·임효진, 2016; 송정화,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 주관적인 안녕, 삶의 질 등의 용어를 삶의 만족도의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삶의 만족에 대한 주요이론으로 통합모델과 심리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욕망충족이론, 목표이론, 비교이론, 적응과 대처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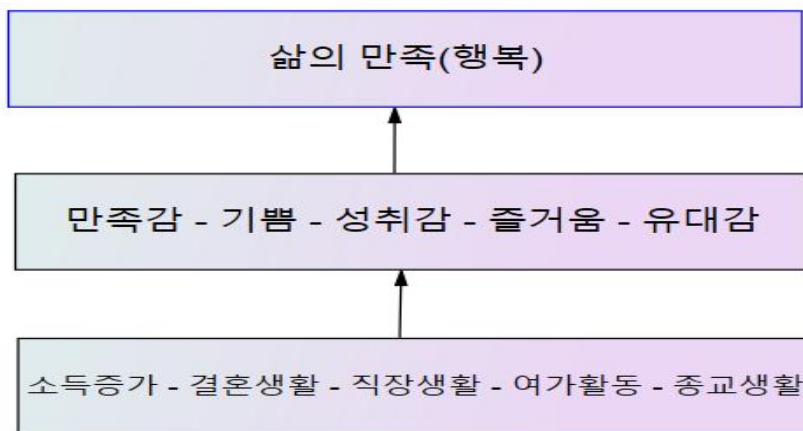
1) 삶의 만족도의 통합적 설명모델

삶의 만족에 대한 인지적 관점으로 상향이론(Botton-up theory)과 하향이론(Top-down theory)을 통합한 통합모델을 들 수 있다(권석만, 2008).

Locke철학¹⁾이 기원인 상향이론(Botton-up theory)은 백지상태의 마음이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Feist et al., 1995). 상황적 원인에 주목하는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으로 삶의 만족도란 한 사람의 결혼과 가족생활, 재정 및 주거 상태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의 합을 의미한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을 판단할 때 순간적으로 행복한 경험과 순간의 심리적 계산을 하는데 인간이 행복한 이유는 이러한 행복한 경험과 순간을 많이 가지기 때문이다(Diener, Sandvik & Pavot, 1991). 이때의 중요한 경험은 복권당첨 등의 극적인 사건경험이 아닌 학업이나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등의 일상생활경험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Ryff, 1997), 경험이 삶의 만족을 결정하므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들을 파악하려 한다(구재선·김의철, 2006).

<그림 2-1>과 같이 소득증가, 결혼생활, 직장생활, 여가활동, 종교생활을 통한 만족감, 기쁨, 성취감, 즐거움, 유대감들이 모여서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되므로 즐겁고 기쁜 긍정적 경험들을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과 상황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권석만,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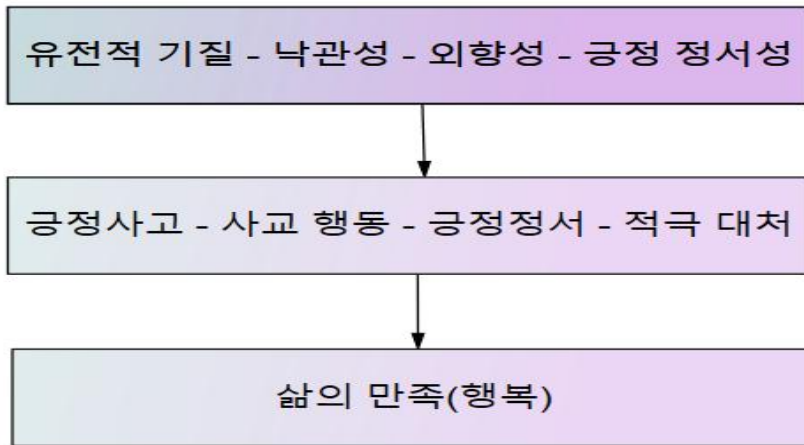
<그림 2-1> 삶의 만족에 대한 상향이론(권석만, 2008)

1) 근대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가 주장한 경험론 철학으로 태어날 때부터 백지인 인간의 마음은 경험에 의해 지식이나 관념이 생긴다는 것이다(곽영직, 2018).

상향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이나 여가활동 등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 및 유대감 등을 많이 쌓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향이론이 삶의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향이론은 전 인생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더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Diener, Oishi & Lucas, 2003).

Kant철학²⁾에 기초한 하향이론(Top-down theory)은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는 개인의 내적특성(통제감, 성격적 경향성, 자기존중감, 외향성, 신경증 등)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본다(Costa & McCrae,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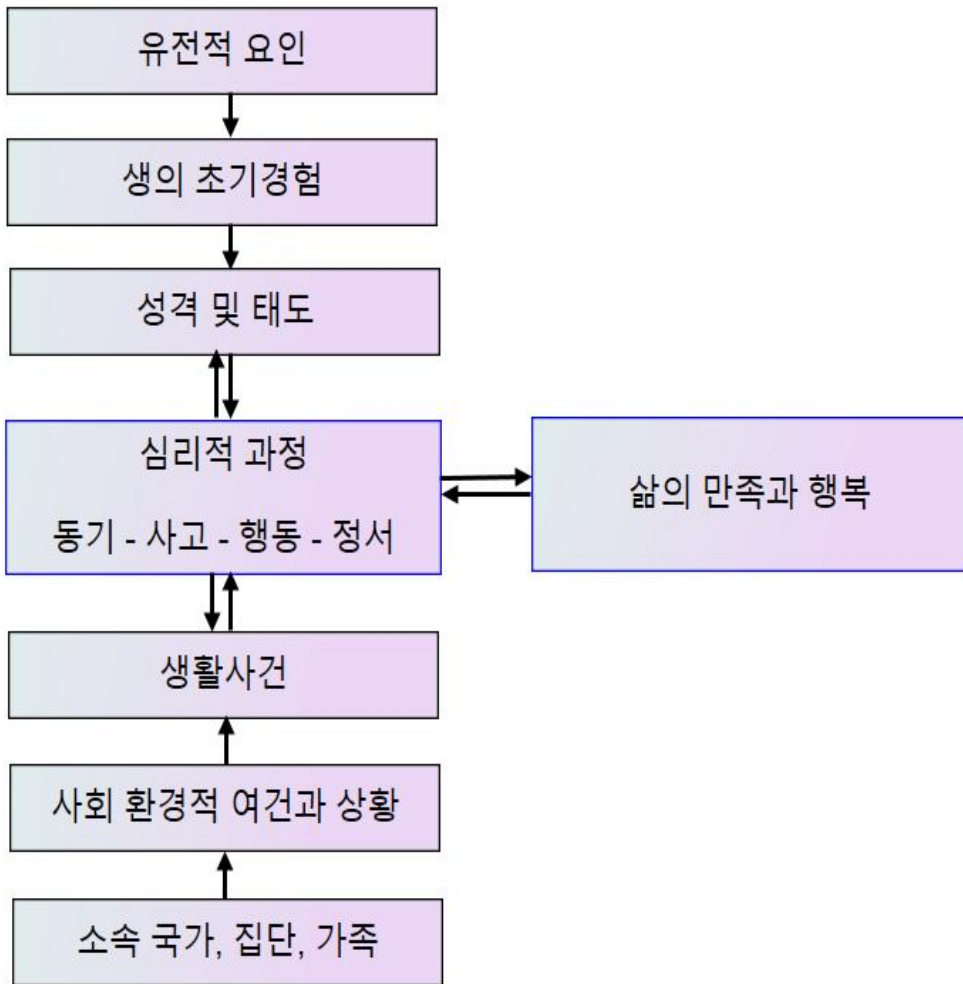


<그림 2-2> 삶의 만족에 대한 하향이론(권석만, 2008)

하향이론에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환경적 여건보다 삶의 태도에 의해서 보다 더 강한 영향을 받는데 <그림 2-2>와 같이 개인의 유전적 기질, 낙관성, 외향성, 긍정 정서성 등 성격적 요인들은 일상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사교적인 행동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권석만, 2008).

2) 18세기 후반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통합하여 우리가 인식하는 자연현상은 단순한 경험에 의한 인식이 아닌 외적경험과 순수한 지식의 결합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인식능력을 비판하고 한계를 설정하였다(곽영직, 2018).

하향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성격이나 정서 성향 및 유전적 기질 등의 영향을 받아 사고(思考)와 행동을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삶의 만족에 대한 통합적 설명모델(권석만, 2008)

통합모델은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통합한 것으로 삶의 여건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객관적인 삶의 여건과 부정적인 정서성을 가진 전반적인 성격차원에 대한 매개역할로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본다(Brief et al., 1993).

삶의 만족도는 성격특성과 삶의 여건의 상호작용에 의한 심리적 과정의 산물로 성격적 요인에 의한 하향적인 영향과 삶의 여건과 경험들을 통한 상향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으므로 인간은 대부분 성격적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심리적 반응을 보이는데 동일한 상황이라도 외부환경에 대한 의미부여와 행동적 반응에 대한 성격적 요인의 영향 때문에 자신의 성격에 따라 반응이 각기 다르다(권석만, 2008).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의 통합적 접근법은 삶의 만족도의 형성 요소 및 형성 과정을 알려주므로 삶의 만족도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잘 설명한다(구재선 · 김의철, 2006).

삶의 만족에 대한 통합적 설명모델 <그림 2-3>과 같이 사람들은 유전적 요인의 영향으로 생의 초기경험을 하고 성격 및 태도가 형성됨과 동시에 소속된 가족과 집단 및 국가의 사회 환경적 여건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 사건들은 동기, 사고(思考), 행동, 정서 등의 심리적 과정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하향적인 영향과 상향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권석만, 2008).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의 통합모델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성격특성과 일상생활 속의 삶의 여건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2) 욕망충족이론(Desire fulfillment theory)

욕망충족이론은 인간이 다양한 욕망(성욕, 식욕,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 등)을 충분히 충족하였을 때 삶의 만족을 느낀다는 이론이다(Diener, 1984).

욕망은 욕구, 충동, 동기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동기는 특정한 목표를 향해 행동하게 하는 내면적인 원동력으로(권석만, 2008) 동기에는 목표 지향적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하며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Ford, 1992).

동기에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있는데 내재적 동기는 돈, 재물, 권력, 명예 등과 같은 외적보상을 얻기 위한 외재적 동기와 달리 심리적 욕구에 의해 작동되므로 심리적 성장 및 자아실현 욕구를 반영하는 내재적 동기의 충족은 매우 중요하다(권석만, 2008). 내재적 동기는 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숙련된 경험을 추구하는 유능성의 욕구, 인간관계를 상호 지지적인 관계로 형성하고자 하는 관계성의 욕구, 삶의 중요한 문제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자율성의 욕구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Ryan & Deci, 2000).

Diener(1984)에 의하면 욕망충족으로 인한 쾌감과 환경적인 여건충족으로 인한 만족감이 더해져 삶이 만족스러워진다. 인간의 욕구는 크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리적 욕구와 후천적인 심리적 욕구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욕구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로 체계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Maslow³⁾의 욕구위계발달이론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의 욕구(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하위욕구인 결핍욕구와 상위욕구인 성장욕구로 크게 구분하며 하위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상위욕구의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송대영, 2007).

Freud⁴⁾의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성적욕구와 공격성 욕구의 충족과정이 인간의 삶이며 사회문화적 현실 속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타협과 절충의 심리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욕망충족이론은 인간의 욕망충족상태가 일시적이며 자신보다 풍요로운 타인을 보면 삶의 만족이 떨어진다는 이론의 한계가 있다(권석만, 2008).

3) Abraham Maslow(1908~1970): 미국의 심리학자로 정신분석과 행동주의를 비판하며 인본주의 심리학을 창시하였다. 인본주의 이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송대영·최현섭(2014)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참고하기 바란다.

4) Sigmund Freud(1856~1939): 오스트리아의 생리학자이며 정신병리학자로 정신분석이론을 창시하였다. 정신분석적 이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송대영·최현섭(2014)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참고하기 바란다.

욕망충족이론에 의하면 내적 동기에 의한 욕망이 충족될 때 쾌감과 만족감이 높아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므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내적동기 유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3) 목표이론(Goal theory)

목표이론은 인간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진전하며 목표의 성취를 이룰 때 행복을 느낀다는 이론으로 목표는 개인이 이루고 싶은 구체적 지향점 및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뜻한다(Austin & Vancouver, 1996).

목표는 가치를 부여하는 접근목표와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한 회피목표가 있는데 가치를 부여하는 접근목표가 행복과 관련성이 높다(권석만, 2008).

목표이론에서는 목표의 성취(Wilson, 1967), 목표의 구체성(Emmons, 1992), 목표들 간의 일관성(Sheldon & Kasser, 1995), 목표를 향한 접근속도(Hseem & Abelson, 1991)등에 따라 행복하다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인간은 내재적 동기가 잘 충족된 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할수록, 목표와 성취의 격차가 작을수록, 구체적인 목표와 더불어 장기적인 추상적 목표를 세울수록, 목표들 간 갈등이 적고 통합성이 높을수록, 목표를 향한 접근속도가 빠를수록 더 행복하다.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자기수용을 하며 타인을 돕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명성이나 물질적 성공을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높고(Cantor & Sanderson, 1999), 추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행복도가 낮다(Emmons, 1992).

개인적 추구는 추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작은 목표들을 통합한 것으로 공통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추상적인 목표를 성취하는데 개인적 추구를 지닐 때 삶의 만족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Emmons, 1992).

평가이론을 제안한 Lucas 등(2000)은 주요 목표를 향한 진전과정이 가장 중

요한 평가요소이며 평가는 평가기준, 개인의 기질과 성격, 소속문화, 처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평가과정의 핵심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 정도와 앞으로 얼마나 잘 달성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라고 하였다(권석만, 2008 재인용).

목표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내재적 동기에 의한 장기적인 목표와 더불어 구체적이고 통합된 목표를 세우고 빠른 속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성취감을 느낄 때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4) 비교이론(Discrepancy theory)

비교이론은 괴리이론이라고도 하며 인간은 어떤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그 비교기준과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면 행복하다는 이론이다(Michalos, 1985). 인간은 자신의 과거의 삶, 지향하는 목표, 이상적인 자기상, 타인 등을 중요한 비교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보다 자신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의 속성이 중요하며 비교기준과의 차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클수록 행복하다(권석만, 2008).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사회적 비교는 자신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수평적 비교(자신과 비슷한 타인과의 비교), 상향적 비교(자신보다 더 나은 타인과의 비교), 하향적 비교(자신보다 못한 타인과의 비교)가 있는데 상향적 비교보다 하향적 비교를 할 때 더 행복하다(Lyubomirsky & Ross, 1997).

과거와의 비교는 인간이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나아졌다는 변화를 인식할 때 행복하다는 것으로 절대적인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변화의 인식이 중요하다(권석만, 2008).

지향하는 목표와의 비교는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의 비교평가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일차적 평가(자신의 목표와 관련한 의미평가)와 이차적 평가(사건 상황에 효과적인 대처방법 평가)가 있으며 개인이 직면한 사건은 일차적 평가에서 목표 관련성(자신의 목표와 특정한 사건의 관련성 정도), 자아 관여성(사건이 자신의 삶의 만족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목표 합치성(자신의 목표

추구에 대한 도움의 정도)의 측면에서 평가한다(Lazarus, 1981, 1991).

긍정적인 자존감의 형성과 유지에는 자기평가 과정, 자기입증 과정, 자기고양 과정이 관여하는데 자기평가 과정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과정이고 자기입증 과정은 자기평가의 확인과정이며 자기고양 과정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평가과정으로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기고양 과정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Sedikides, 1993).

이상적인 자기상과의 비교는 자기상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비교평가 하는 것으로 이상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가 있으며 자기평가 시 이상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는데 둘 사이의 괴리감이 클수록 삶의 만족은 저하된다(Higgins, 1987).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작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커지므로 청소년들에게 있어 적절한 이상과 긍정적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적응과 대처이론(Adaptation & Coping theory)

적응과 대처이론은 행복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과정인 적응과 대처가 중요하다는 이론으로 적응은 동일한 쾌락자극에 대한 인식의 점진적인 감소현상으로 수동적인 반응이고 대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인지적 반응으로 능동적인 반응이다(권석만, 2008).

적응은 습관화(habituation) 또는 둔감화(desensitization)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외부의 자극에 대해 보호해주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지도록 하여 새로운 변화상황에 적응하면서 독립적인 상태로 돌아가도록 한다(Brickman & Campbell, 1971).

행복은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변화에 예민한 인간은 충족된 욕망이 달성되어 느낀 행복감이 지속되면 빠른 시간동안 긍정적 상태에 대한 적응으로 행복감이 저하된다. 그 예로 적응현상과 관련한 대표적인

Brickman 등(1978)의 복권당첨자들의 삶의 변화조사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복권당첨자들의 일상적 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과거, 현재, 미래의 행복도는 이웃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덜 즐거웠으며 덜 행복했다.

대처는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낙관적인 신념이 중요하다. 미래에 낙관적인 사람들 즉, 변화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성숙한 문제해결 적 대처를 하며 합리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다(Kahneman, Diener & Schwarz, 1999). 그러나 비현실적 낙관은 거짓된 안전감과 잘못된 위험 지각을 하게 하여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삶의 만족 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낙관성이 현실적이어야만 한다(Schneider, 2001).

적응과 대처이론은 사건의 부정적 사건에 대한 수용과 긍정적인 미세한 변화에 주목하고 미래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처를 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권석만, 2008).

우리는 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를 하며 살아간다. 가끔은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주저앉기도 하고 잠시 머뭇거리기도 한다. 새로운 변화에 겨우 적응을 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또 다른 변화가 밀려오곤 한다. 이때 밀려오는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능력은 무척 중요하므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인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적응(성경주·김재철, 2017; 조성희·박소영, 2015; 김신경·박민경·안지선, 2014), 또래애착(오승아·유준호, 2017; 한영수·송원영, 2012), 교우관계(이현정·손수경·홍세희, 2018; 송현주·황순택, 2016), 공동체의식(이선경, 2018; 최형임·문영경, 2013; 김상미·남진열, 2011), 지역사회인식(이수천·이재용, 2017; 조성희·박소영, 2015), 학업성취(유경훈, 2013)등이 있다.

횡단적인 관점에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일정

한 시점에서의 연령 비교 연구(이기정·김영식, 2015),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 연구(이현정·손수경·홍세희, 2018; 이선경, 2018; 조성희·박소영, 2015; 고은혜, 2015)들이 있다.

조성희와 박소영(2015)은 초기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자아탄력성, 지역사회인식, 부모양육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종단적인 관점에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논문들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정운화·봉초운·홍세희, 2018; 김윤희·김현숙, 2016)과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연구(정은주, 2015) 등이 있다.

강윤아(2018)의 연구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성장변화에 개인차가 존재했으며 김윤희와 김현숙(2016)의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초기 삶의 만족도가 높고 성장변화는 더 빨랐다.

정운화 등(2018)의 연구에서는 KCYPS 중1패널 6차년도 자료 중 2차를 제외한 조사 자료에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남자 청소년들의 초기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현정 등(2018)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들과의 종단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교우관계와 상호적인 영향관계에 있으나 삶의 교우관계 및 학교 학습활동과의 관계성은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들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에는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다가 고등학교시기에 다시 증가한다는 연구(정운화·봉초운·홍세희, 2018)와 청소년 초기에 증가하다가 후기에 감소한다는 상반된 연구(김소영·윤기봉, 2016; 김진아, 2016; 이용택·곽현·이은경, 2016; 전현정·정혜원, 2016)가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연구(이혜주·정의현, 2018)와 감소한다는 연구(임종필, 2017; 김윤희·김현숙, 2016) 및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다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연구(이순성, 2010)도 있어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들(김명자, 2017; 김윤희·김현숙, 2016; 최유선 외 2015; Leung, McBride-Chang and Lai, 2004)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신에 대한 현실적 판단과 더불어

사회적 평가가 가능해지고(Stone and Lemanek, 1990), 사회적 책임을 갖게 되면서 연령별 주관적 삶의 평가에 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Harter, 1986).

삶의 만족도는 성별차이가 있다는 연구(이수천·이재용, 2017; 김윤희·김현숙, 2016; 조성희·박소영, 2015)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이현정·손수경·홍세희, 2018)가 있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공동체의식(Community Consciousness)

1. 공동체의식의 의미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의 소속감, 집단에서 중요한 존재로서의 느낌, 문제해결활동에의 참여로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되리라는 공유된 믿음이며(McMillan & Chavis, 1986) 집단원들의 단결을 토대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통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의 가치와 목표 및 신념이다(Reich, 2010; Chavis & Wandersman, 1990; Sarason, 1974).

McMillan & Cavis(1986)에 의하면 공동체의식은 멤버십(membership), 필요의 통합과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공동체와 구성원 간의 상호영향력(influence), 정서적 유대공유(shared emotional connection)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멤버십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 하여 얻은 공동체 구성원의 지위로 비구성원과 구별하게 하며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여 구성원 간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둘째, 필요의 통합과 충족은 강화(reinforcement)의 개념으로 구성원들의 공동체 내 협력을 통해 필요의 충족이 이루어진다.

셋째, 공동체와 구성원 간의 상호영향력은 쌍방향적 개념으로 구성원은 다른 공동체에 비해 보다 더 큰 공동체에 큰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결속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의 관습을 따르도록 한다.

넷째, 정서적 유대공유는 공동체를 통해 구성원들과의 정신적 유대를 경험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비슷한 지역 환경에서 공통된 삶의 양식을 나누는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지향할 때 형성되므로(박서호, 1993)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또한 학교공동체의 생활환경에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하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집단이나 봉사활동 등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타인과 만나고, 나의 관점과는 다를 수 있는 다양한 관점과 가능성을 접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점차 확장시킬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선천적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성장하면서 천천히 형성되고 학습되는 것으로(박재숙, 2010)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또래관계와 시민적 참여활동,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다양한 참여활동이 중요하다(박민하, 2017; 김태균·오승근, 2015; 신인순·강현주·정평화, 2014; 최형임·문영경, 2013; 김상미·남진열, 2011).

2.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

공동체의식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동체의식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관계(김상미·남진열, 2011), 학교생활적응(박민하, 2017; 정득·김은수·이종석, 2016; 위유라·노충래, 2014; 최형임·문영경, 2013), 삶의 만족도(이선경, 2018; 이수천·이재용, 2017; 조성희·박소영, 2015; 최형임·문영경, 2013), 또래관계(손수경·이현정·홍세희, 2017; 강가영·장유미, 2013), 체험활동(김양희, 2018; 장명옥, 2017; 구지윤·김유나, 2016; 김태균·오승근, 2015; 신인순·강현주·정평화, 2014), 성별(하성민, 2013; 김상미·남진열, 2011), 진로정체감(조한익·김영숙, 2016) 등이 있다.

김양희(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학습과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중 합리적 토론이 공동체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에서의 문제해결과 의

사결정과정의 참여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민하(2017)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 자아정체성,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정체성과 또래관계는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지윤과 김유나(20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체험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의 상호작용이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차원의 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정득 등(2016)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문화예술 활동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정체성은 환경특성과 공동체의식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명옥(2017)의 초등학생의 독서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는 독서봉사활동을 한 집단의 공동체의식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의 종단연구를 살펴보면, 박현정 등(2015)의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연구에서 청소년기의 공동체의식은 개인차가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으로 변화하였다.

박수원과 김섯별(2016)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인과관계임을 밝히고, 청소년의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의 질에 대한 고려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증진에 초점을 맞춘다면 효과가 증진될 것이라고 하였다.

주계순(2017)은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이 개인차가 있으며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학교적응에 완전매개역할을 하므로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가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삶의 만족도,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성이 깊었으며 종단연구를 통해 공동체의식에 개인차가 있으므로 공동체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3절 또래 의사소통(Peer Communication)

1. 또래 의사소통의 의의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된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공통, 공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근본요소로 개인이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이며 도구이다(김영임·최현철, 2009).

의사소통은 언어적·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인간의 생각, 태도, 감정, 느낌 등의 메시지를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순환적 과정이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과정으로 생각, 감정, 생각, 태도, 느낌 등의 메시지 전달의 매개체이다(고상미, 2000).

의사소통은 생각을 전달하는 송신자(sender), 송신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메시지(message), 생각을 전달받는 수신자(receiver), 수신자의 메시지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송대영, 2007).

인간관계를 위한 의사소통의 기능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안효자 외, 2018). 첫째,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수단이다. 둘째,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셋째,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넷째, 설득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동이 가능하다. 여섯째,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청소년들의 또래와의 갈등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어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조재윤·서수현, 2018)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으로 감정, 의견, 생각, 사실의 교환을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과정이다(김은미, 2003).

청소년들의 또래 간 의사소통은 면대면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친구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피드백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동료애로 서로를 의지한다(Seltzer, 1989). 청소년들은 정체감형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또래관계를 통해 갈등해결 기술을 배울 수 있고(Collins & Repinski, 1994), 대인관계 기술이 원만한 청소년들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잘 이루어지지만(Bishop & Inderbitzen, 1995) 대인관계기술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또래에게 거부당하기 쉬우며(Brown, 1996) 또래로부터 거부 및 비 일관적 지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덜 경험한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의 경험이 높다.

2. 청소년 또래의사소통의 영향요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한 관계로 또래의사소통은 또래애착의 하위요소로 분류되어 연구되어져(박미려·양은주, 2017; 김상미·남진열, 2011) 또래의사소통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조재윤과 서수현(2018)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간 의사소통 과정의 갈등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또래 간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또래 간 갈등이 또래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어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도 또래 간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밝혔다. 남학생들은 친구에게 생각이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거나 감정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친구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생각이 다를 때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려 노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였다. 또한 조재윤과 서수현(2018)은 청소년 의사소통의 특성으로 또래집단과의 온라인 의사소통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온라인에서도 또래 간 대화를 잘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이 포함되어 연구된 또래애착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장소영, 2012; 김상미·남진열, 2011; 박재숙, 2010; 심성보, 2008)과 삶의 만족도(박미려·양은주, 2017; 강인경·김춘경, 2016; 황매향·최희철·임효진, 2016; 한영수·송원영, 2012; 김상미·남진열, 2011)와 관련된 연구논문들이 많았다.

그 외 자아존중감(이보람·박혜준, 2016), 자기조절학습능력(강인경·김춘경,

2016),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연구(고혜영, 2012)등이 있다.

황매향 등(2016)의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은 5년의 시간동안 또래애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전 시점의 또래애착이 강할수록 이후 시점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이 높아졌다.

박미려와 양은주(2017)의 고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잘 형성된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강인경과 김춘경(2016)의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청소년들은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더 높았다.

위와 같이 또래의사소통이 포함된 또래애착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 삶의 만족, 진로정체감, 공동체의식 등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제4절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

1. 진로정체감의 의의

진로정체감은 Erikson(1968)과 Marcia(1980)의 자아정체감이 발전된 개념으로 개인의 직업목표나 적성과 흥미를 의미하며(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진로에 대한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존재의식의 수준, 자기주장을 의미한다(손성화, 2018). 또한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송은영, 2017) 직업 영역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 개인이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청사진을 의미한다(Holland, 1985).

청소년기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능력, 또는 목표에 대해 얼마나 명확한 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낸다(Holland, Daiger & Power, 1980).

이러한 진로정체감에는 진로에 대한 동기와 개인적 가치가 포함되며

(McArdle, Briscoe & Hall, 2007), 청소년은 진로정체감 형성을 통해 직업에 대한 개방성과 직업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Vondracek & Skorikov, 1997). 청소년기의 필수적 과업으로 볼 수 있는 진로정체감 형성은 진로선택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김보영·장은비, 2015).

Erickson(1968)은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형성과정에서 진로정체감의 형성과 발달이 청소년 시기의 정체감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Super(1963)는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일관성 있는 진로계획수립과 구체적인 자기개념의 발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진로정체감 형성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아실현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진로발달을 이룰 수 있게 한다(Tiedeman & O'hara, 196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정체감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며, 특히 대학입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적절한 진로의 선택은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희선·선우현정, 2015). 청소년기는 특히 직업과 진로에 관련된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로, 이때 형성된 진로정체감은 올바른 진로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rikson, 1963). 진로정체감의 발달은 진로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없애고 삶의 안정성과 삶의 만족을 느끼게 해주며(김관호, 2017), 바람직한 진로의식과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선영, 2017).

진로정체감이 높은 청소년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고(이지혜, 2013; 김미주, 2011), 자신감 있게 진로관련 의사결정을 내린다(유정이·황매향·김지현, 2005).

진로정체감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Melgosa(1987)는 정체감을 성취, 유예, 폐쇄, 흥미로 구분하였으며 Holland, Daiger & Power(1980)는 명확한 진로계획에 대한 이해의 단일구성요소로 자신과 직업정보에 대한 이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하위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국내의 경우 김신정과 김성희(2012)는 진로정체감을 정서, 행동, 인지의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자기이해, 안정성, 자기주장, 독특성, 목표지향성으로 진로정체감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Holland(1985)의 개념을 중심으로 진로정체감을 직업 영역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 개인의 직업목표, 흥미, 적성으로 정의한다.

2. 청소년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

진로정체감은 자아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흥미, 목표, 능력 등에 대해서 스스로 지각하고 판단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지향목표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장희선·윤정이, 2016; 김동욱·손원숙, 2014),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은경 외, 2017; 이희선·선우현정, 2015), 자아정체감을 성취하면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들(Lucas, 1997; 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공동체의식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박은정·이유리·이성훈, 2016) 등과 관련된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의 만족감과 성공감이 크다(송은영, 2017).

진로정체감에 대한 성별 비교분석을 살펴보면, 남녀 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유수필, 2008)와 없다는 연구들(권윤정, 2017; 노소영, 2017)이 공존한다. 남녀 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았다(김민정, 2012; 유수필, 2008).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요인으로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 삶의 목표가 있고(조한익·김영숙, 2016; 김우리·박영희·김정섭, 2014; 손연아·신수지·손은령, 2014), 개인 외적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등의 가족관련 변인(박지영·정현숙, 2016; 이희선·선우현정, 2015)과 교사와의 관계, 또래애착 등의 학교관련 변인들(문은식, 2015; 손연아·신수지·손은령, 2014)이 있다.

진로정체감과 관련하여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연구들(이은경 외, 2017; 이희선·선우현정, 2015; 김우리·박영희·김정섭, 2014)이 많았으며 그 외 삶의 목표(인효연·길혜지, 2017; 손연아·신수지·손은령, 2014), 체험활동(가영선, 2015), 학업성취도(임선아, 2013), 또래애착(손연아·신수지·손은령, 2014), 부모양육태도(박지영·정현숙, 2016), 삶의 만족도(서희정·윤명희, 2018; 김보경, 2017; 박미려·양은주, 2017), 공동체의식(조한익·김영숙, 2016)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이은경 등(2017)의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연구에서는 초기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초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변화가 진로정체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지속적인 자아정체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희선과 선우현정(2015)의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연아 등(2014)의 연구에서는 삶의 목표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인임을 확인하였고, 삶의 만족도, 자아정체감, 정서, 학습습관, 자존감, 또래애착, 학대방임이 순서대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박미려와 양은주(2017)의 고등학생의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연구에서는 또래애착 형성이 잘 될수록 삶의 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이 높았으며 또한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김보경(2017)의 연구에서는 삶의 목표의 하위요인인 성장목표와 관계목표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희정과 윤명희(201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할 때 더 강화되었다.

진로정체감과 삶의 만족도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서희정·윤명희, 2018; 박미려·양은주, 2017; 안지혜 외, 2016)와 삶의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선행연구(김보경, 2017)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한익과 김영숙(2016)의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과 자아정체감(초기값과 변화율)이 진로정체감(초기값과 변화율)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제5절 주요변수들의 관계

1. 공동체의식과 또래의사소통 및 삶의 만족도

청소년기는 가족관계를 넘어 또래와의 애착이 중요해지는 시기로(Annette, Greca & Hsrrison, 2005),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한 청소년은 정체감 확립과 정서의 공유 및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한다(안수영 · 이형실, 2009).

청소년들은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구집단을 이루며 각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청소년들만의 언어인 은어를 자주 사용하거나 원하는 음악과 스타일을 공유하면서 집단의 공동체의식을 공유한다.

집단의 구성원들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행이 생기면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집단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한국청소년개발원 외, 2004) 청소년시기에 또래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비행이나 일탈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성립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이후 정부와 학교 현장, 지역공동체가 손을 잡고 청소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시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2019년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또래문화를 위해 기획된 전주 야호학교의 경우 청소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간다(중부뉴스통신, 2019).

또한 제주부영 청소년 수련원의 ‘꿈꾸리’(학생자치회 간부 수련회 프로그램)과 ‘우리또래’(인성 수련회 프로그램)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타인과 올바르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운영 중이다(매일일보, 2019).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목표한 성과를 거둬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끌어당길 흥

미와 밀도 있는 내용을 담아야하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은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 및 삶의 만족도

Diener & Fujita(2005)에 의하면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내적인 요인들과 외적인 요인들의 영향으로 결정되지만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환경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상호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은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직결된 중요한 미래 사회자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 청소년들은 경험이 적고 사회적 성숙도 불안정하다는 청소년기의 보편적 특징에 더해 날로 극심해지는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통계에 근거하여 2017년까지 11년 동안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1위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성격 및 적성 등 진로의 탐색과 준비시기로(Super, 1990)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일수록 우울감이 높고 직업과 공부, 진학 등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많다(연합뉴스, 2019).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의 선택이 중요한데 특히 청소년시기에는 올바른 직업선택을 위한 진로정체감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지고(조한익·김영숙, 2016), 진로정체감은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김보경, 2017)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로정체감의 형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진로정체감 형성이 빠를수록 삶의 만족도에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요인들을 길러주는 교육활동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안지혜, 2016).

3. 선행연구의 평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동체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였는데 현재까지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연구자들에 의해 일방적인 회귀경로를 설정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밝히고 있다(이선경, 2018; 조성희·박소영, 2015; 위유라·노충래, 2014; 최형임·문영경, 2013).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류승아, 2016; 최형임·문영경, 2013)와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상미·남진열, 2011)가 있다.

또래애착은 공동체의식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아영아·김진영, 2018; 이정민·정혜원, 2017; 박수원·김셋별, 2016; 박현정·김전옥·손윤의, 2015; 강가영·장유미, 2013; 김상미·남진열, 2011).

또래의사소통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또래애착의 하위요인으로 연구되어져 왔으며 또래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인경·김춘경, 2016; 한영수·송원영, 2012; 김상미·남진열, 2011).

김상미와 남진열(2011)은 소외가 낮을수록, 또래의사소통 기회가 많을수록, 신뢰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선숙과 안재진(2012)의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연구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또래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경(201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았으며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또래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효과검증을 제안하였다.

류승아(2016)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신체불편증상이 낮고 긍정적인 건강상태 자가 평가결과를 보였다.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또래애착이 강할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졌다(박미려·양은주, 2017; 황매향·최희철·임효진, 2016; 조진만·강정한·이병규, 2012).

박미려와 양은주(2017)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진로정체감과 삶의 만족감이 높았고,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황매향 등(20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이전 시점의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삶의 만족에서 또래애착으로 가는 교차지연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조진만 등(2012)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 청소년에게 있어 관계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또래의 수가 아닌 다수의 또래로부터의 인정을 통한 인기감과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 지므로 사회적인 지지의 구조적 효과측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을 언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지고(조한익·김영숙, 2016),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높다는 연구(한은영·김미강, 2013)가 있었다.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진로스트레스(이상희·신상수, 2012), 진로준비행동(기영락·임성택, 2010; 이옥경, 2013) 진로정체감(김보경, 2017; 안지혜·윤유동·임희석, 2016)과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안지혜 등(2016)은 중학생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 연구에서 개인의 내적요인인 정서문제와 자아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진로정체감이 높을 때 삶의 만족도에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요인들을 길러주는 교육활동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보경(2017)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조한익과 김영숙(2016)의 연구에 의하면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가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삶의 만족도를 언급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아(2018)의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정체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개인별, 성별 간 차이가 있고 여학생들이 삶의 만족도에 더 취약하였으며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국내 패널데이터 활용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연구의 흐름이 단순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의 횡단연구에서 벗어나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잠재성장모형분석 등의 종단연구중심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조사한 국내 패널데이터 활용 선행연구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국내 패널데이터 활용 선행연구

연구자	대상	관련요인	분석방법	패널데이터
노소영·유난숙 (2018)	중3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다중회귀분석	(KCYPS) 중1
서희정·윤명희 (2018)	중3, 고3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초4, 중1
아영아·김진영 (2018)	중1~고2	또래애착, 공동체의식	잠재성장모형	(KCYPS) 중1
이선경(2018)	중1	삶의 만족, 또래관계, 공동체의식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초1
이현정·손수경·홍세희(2018)	초4~중3	삶의 만족도, 학교학습활동, 교우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KCYPS) 초4

<

연구자	대상	관련요인	분석방법	패널 데이터
정운화·봉초은·홍세희(2018)	중1~고3	삶의 만족도,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아존중감, 성별	잠재성장모형	(KCYPS) 중1
권윤정(2017)	중3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진로정체감, 비행경험	회귀분석	(KCYPS) 초4
김보경(2017)	중3	삶의 목표, 삶의 만족도, 진로정체감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초4
박미려·양은주(2017)	중1~고2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	회귀분석	(KCYPS) 중1
박민하(2017)	초4~중1	학교생활적응,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 또래관계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초4
손수경·이현정·홍세희(2017)	초4~중3	학습활동,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	잠재성장모형	(KCYPS) 초4
오민아·조혜영(2017)	중2~고1	사회적 위축, 우울, 공동체의식, 성취가치	잠재성장모형	(KCYPS) 중1
이은경·신아라·김선경·이응택(2017)	중3~고3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잠재성장모형	(KCYPS) 중1
인효연·길혜지(2017)	고2	삶의 목표, 진로정체감,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다변량분산분석	(KCYPS) 중1
주계순(2017)	중2~고2	청소년활동 만족도, 학교적응, 공동체의식	잠재성장모형	(KCYPS) 중1
김윤희·김현숙(2016)	초4~중1	삶의 만족도, 성별, 애착	잠재성장모형	(KCYPS) 초4

연구자	대상	관련요인	분석방법	패널데이터
류승아(2016)	초6~ 중2	공동체의식, 신체발달 정서발달(삶의 만족도 등)	위계적회귀분석	(KCYPS) 초4
박수원·김셋별 (2016)	중3~ 고2	사회적 관계성, 공동체의식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	(KCYPS) 중1
안지혜·윤유동· 임희석(2016)	중3	삶의 만족도, 개인의 정 서문제, 자아인식, 또래애 착, 진로정체감 등	회귀분석, 의사 결정나무모형	(KCYPS) 중1
정득·김은수·이 종석(2016)	고2	문화예술 활동, 공동체의 식, 자아정체성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중1
조한익·김영숙 (2016)	중3~ 고3	미래지향목표, 자아정체 감, 공동체의식, 진로정체 감	잠재성장모형	(KCYPS) 중1
황매향·최희철· 임효진(2016)	중1~ 고2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	(KCYPS) 중1
가영선(2015)	중1~ 중3	창의적체험활동, 진로정체감	다중회귀분석	(KCYPS) 중1
고은혜(2015)	중1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삶의 만족도	위계적회귀분석	(KCYPS) 중1
박현정·김전욱· 손윤의(2015)	중1~ 고2	공동체의식, 체험활동시간, 시간의존적 변수	다층성장모형	(KCYPS) 중1
이희선·선우현 정(2015)	중1~ 고1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	잠재성장모형	(KCYPS) 중1

연구자	대상	관련요인	분석방법	패널데이터
정은주(2015)	중3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부모방임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중1
조성희·박소영 (2015)	중1	삶의 만족도, 부모양육 방식,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 등	위계적회귀분석	(KCYPS) 중1
김문수(2014)	중1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또래애착	다중회귀분석	(KCYPS) 초4
손연아·신수지· 손은령(2014)	중3	진로정체감, 삶의 목표, 삶 의 만족도, 자아정체감, 정 서, 학습습관, 자존감, 또 래애착, 학대방임	위계적선형모형 (HLM)	(KCYPS) 중1
신인순·강현주· 정평화(2014)	고1	청소년체험활동,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인식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중1
강가영·장유미 (2013)	중1~ 고3	공동체의식, 내적·외적 환경변수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중1
최형임·문영경 (2013)	중1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 응, 삶의 만족도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중1
고혜영(2012)	중1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부모양육태도, 삶의 만 족도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중1
김상미·남진열 (2011)	중1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 공동체의식, 삶의 만 족도	다중회귀분석	(KCYPS) 중1
이순성(2010)	중2~ 고3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 감, 학업스트레스, 여가 만족도, 애착관계(부모, 교사, 친구)	다중회귀분석	(KYPS) 중2

제 3 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1. 잠재성장모형

1) 잠재성장모형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은 Meredith & Tisak(1990)가 도입한 통계기법으로(Duncan et al, 1999)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변수의 시간 축에 따른 변화를 다룬 모형이며 시간에 따른 개인차의 발달에 있어 반복측정 된 지표의 속성을 대표하는 잠재변수를 사용하는 구조방정식모형에 속한다(Mason, 2001).

잠재성장모형은 변화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 방법으로 세 번 또는 그 이상 측정된 종단자료나 패널자료에 대하여 집단 평균 또는 개인에 대한 변화량을 확인할 수 있다(김계수, 2009).

잠재성장모형은 각각의 잠재변수의 관찰 시점에서의 평균값(절편)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평균값의 변화 정도(기울기) 및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추정한다. 이때 기울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율(rate of change)을 나타내고 절편(intercept)은 기준시점(baseline)의 측정치를 나타내는 초기값이다. 즉, 잠재성장모형은 변화에서 개인차의 유의미한 정도, 개인차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요인과 간접적인 영향요인, 각각의 잠재변수에서의 변화와 잠재변수들의 변화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Duncan et al, 1999).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종단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1수준 개인

내 모형과 2수준 개인 간 모형으로 구성되어 각 개인의 발달궤적과 집단의 발달궤적을 알 수 있다(Curran, 2000).

개인 내 성장모형과 개인 간 차이모형은 단일 차원성과 공통척도성의 기본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며(이기중, 2012) 개인 내, 개인 간 변화를 모델링한 두 개의 잠재변인은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설정되는데 그 이유는 초기의 측정값이 이후의 값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수백, 2009).

개인 내 모형(within-subject model)은 1수준 모형으로 변화함수가 선형인 경우 그 모형은 다음 식1과 같다.

$$Z_{ij} = B_i + \Gamma_i k_j + \epsilon_{ij} \dots\dots\dots(\text{식1})$$

Z_{ij} 는 시간에서의 개인점수, B_i 는 개인의 초기상태(절편), Γ_i 는 개인의 변화율(기울기), k_j 는 측정된 시간, ϵ_{ij} 는 모형의 오차를 나타낸다.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4번 측정된 경우 k_j 는 0, 1, 2, 3으로 기록되고 선형모형에서의 개인변화는 시간에 비례하는 변화와 오차가 합하여진 값이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개인 간 모형(between-subject model)은 2수준 모형으로 변화함수가 선형인 경우 그 모형은 다음 식2와 같다.

$$B_i = B + u_{Bi}, \Gamma_i = \Gamma + u_{\Gamma i} \dots\dots\dots(\text{식2})$$

B 는 초기값의 집단평균, Γ 는 변화율의 집단평균, u 는 초기값과 변화율에서 개인과 집단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나타낸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이렇게 1수준 모형과 2수준 모형을 통해 전체 집단의 관심 변인의 변화함수 및 각 개인의 변화함수가 추정되는데, 이에 따라 개인과 전체집단의 발달궤적이 도출된다(Curran, 2000). 평균 잠재성장모형에의 각 계수의 변량은 개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김계수, 2009; Duncan et al., 1999).

간략히 요약하면 잠재성장모형(LGM: Latent Growth Model)은 Meredith & Tisak(1990)에 의해 도입된 통계기법으로 3회 이상 반복 측정된 종단자료를 활

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관찰시점의 변수 평균값인 절편과 시간진행에 따른 평균값 변화정도인 기울기를 잠재변수로 설정하여 각 요인의 평균과 요인 간 경로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LGM)은 이론적 근거에 의해 모형을 개념화하고 모형을 구축해야 하는데 각 시점의 측정변수 평균을 검토 후 무변화모형, 변화모형(일차함수변화모형, 다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변화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변화모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무변화모형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만을 추정할 수 있는 무변화모형은 각 시점의 측정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지만 매 초기값은 그 이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모형이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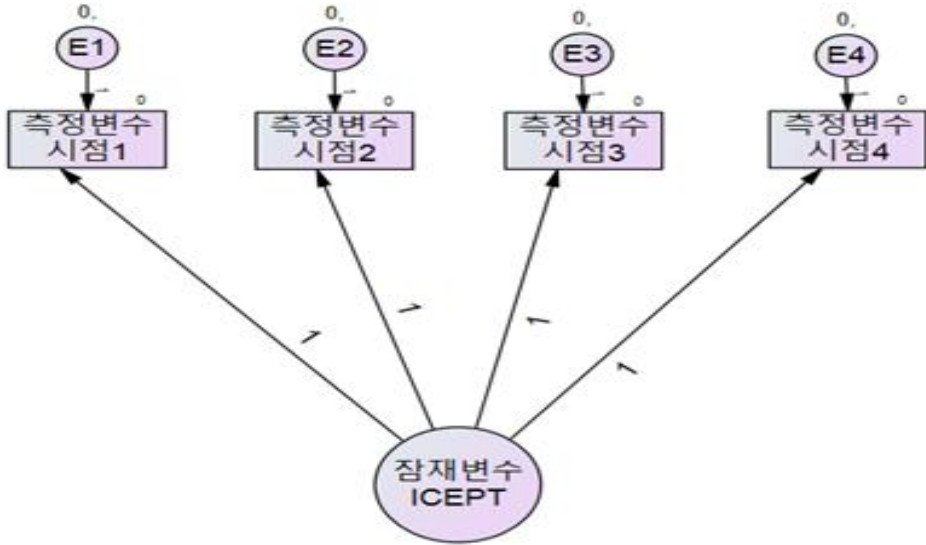
무변화모형은 초기값이 각 시점의 측정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측정변수로의 모든 요인 적재치를 1로 고정하고 측정변수의 초기값은 추정하지 않으므로 0으로 고정한다.

잠재성장모형에서의 무변화 모형은 다음 <그림 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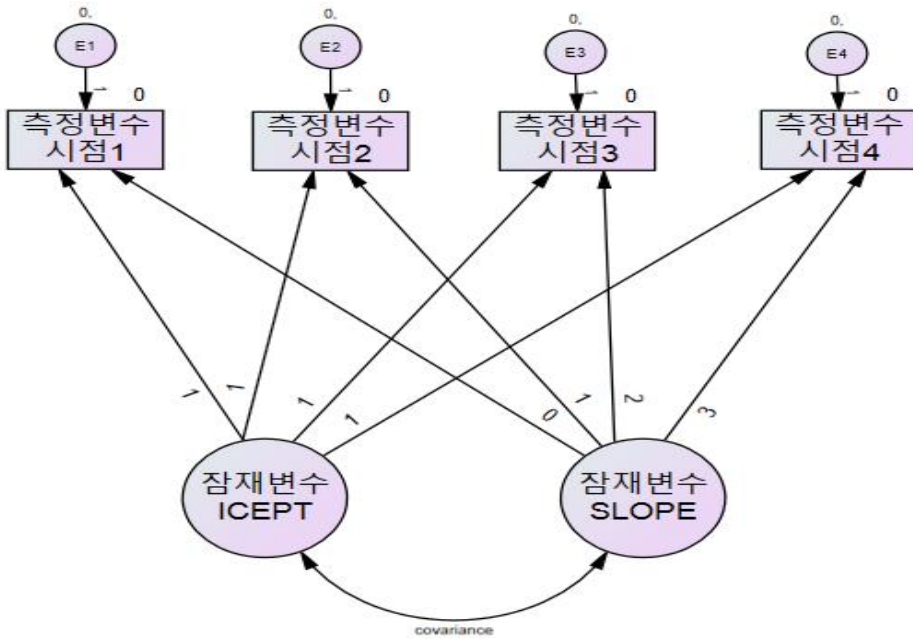
(2) 일차함수변화모형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모형이라 불리는 일차함수변화모형은 각 시점의 측정변수의 변화가 일관되게 감소,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절편과 기울기를 통해 구한 변수 값이 일차함수일 때 선형변화모형이라고 한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일차함수변화모형은 일관성 있게 변화한다는 가정 하에 잠재변수의 초기값은 1로 고정하고 잠재변수의 변화율에서 측정변수로의 요인 적재치를 최초 시점부터 0, 1, 2, 3으로 미리 고정한다(Meredith & Tisak, 1990).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일차함수변화모형은 다음 <그림 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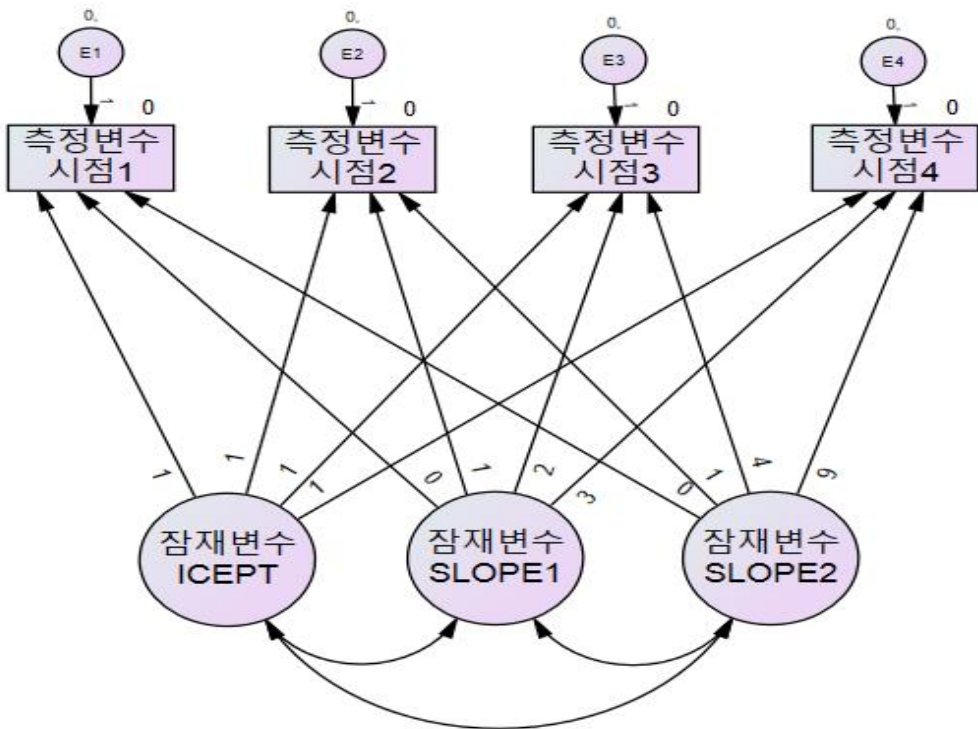
<그림 3-1> 잠재성장모형에서의 무변화모형(Singer & Willett, 2003)



<그림 3-2>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일차함수변화모형(Singer & Willett, 2003)

(3) 다차함수변화모형

다차함수변화모형은 변수를 측정할 시점이 4시점 이상으로 각 시점의 측정변수의 변화가 일관되지 않고 기울기가 특정시점에서 변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잠재성장모형에서 설정 가능한 함수의 차수는 ‘측정 시점의 수-2’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해석이 어려우며 적절한 이론적 기반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그림 3-3>은 측정시점이 4시점인 이차함수변화모형의 예이다.



<그림 3-3> 잠재성장모형에서의 다차함수변화모형(Singer & Willett, 2003)

2) 다변량잠재성장모형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은 잠재성장모형의 변화 모형을 확정한 이후 다수의 잠재성장모형들로 구성되어 변수들 간 관련성 및 변수들의 변화 간 관련성 검증이 가능하다(MacCallum et al, 1997). 시간의 경과에 따라 둘 이상의 반복측정 변수가 체계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잠재성장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잠재성장요인 간 관계 탐색이 가능하다(Walsh et al., 2011).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은 독립변수의 절편이 종속변수의 절편과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독립변수의 기울기가 종속변수의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중단매개효과와 성별 집단비교분석을 위하여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였다.

3) 다변량잠재성장모형에서의 중단 매개효과 분석

다변량잠재성장모형에서의 중단 매개효과 분석은 변수들 간의 변화관계를 개인내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매개모형을 중단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할 경우에는 횡단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acKinnon, 2008).

또한 중단자료는 다시점 자료이므로 시간적 선후(이전 시점과 이후시점)을 분석에 반영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인과적 방향성을 검증할 수 있다(Bentley et al, 2012; Lockhart, MacKinnon & Ohlrich, 2011; Cole & Maxwell, 2003).

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의 결과이면서 종속변인의 원인이 되는 변인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관계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Baron & Kenny, 1986).

매개효과(mediation effect)추정을 할 때에는 총효과(total effect),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와 같이

전체효과는 Y_e 가 Z_e 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의미하며, 직접효과는 Y_e 가 Z_e 에 미치는 영향 중 X_e 를 거치지 않는 영향, 간접효과는 Y_e 가 X_e 를 거쳐 Z_e 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이는 종단매개분석에서도 확장되어 적용되는 개념이다. Y_e 가 Z_e 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a' 와 b'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전체효과는 직접효과인 c' 와 간접효과인 $a' \cdot b'$ 의 합으로 표현된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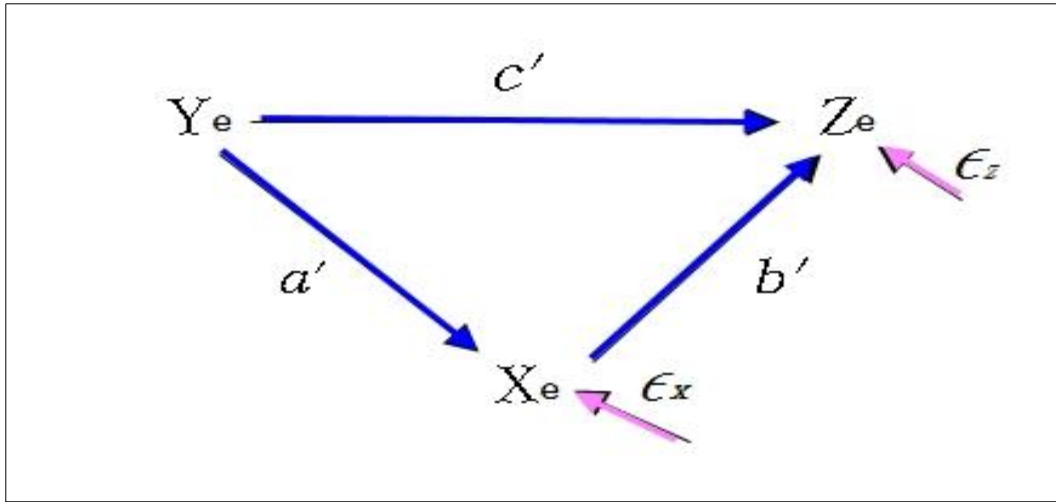
직접효과(direct effect)= c' (식1)

간접효과(indirect effect)= $a' \cdot b'$ (식2)

전체효과(total effect)= $c' + a' \cdot b'$ (식3)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매개경로계수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추정해야한다. 추정방법으로 Sobel(1982)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본 수가 많을 때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Aroan, 1947; Craig, 1936) 다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 종단매개효과의 간접효과 검증에 적용되기는 어렵다(Cole & Maxwell, 2003). 따라서 종단연구에서는 간접효과 검증에 붓스트랩(bootstrap)방식을 활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특히 편의 조정된 붓스트랩(Biased-Corrected Bootstrap)의 신뢰구간은 적은 사례수로도 검정력이 좋다(Fritz & MacKinnon, 2007).

Efron(1979)에 의해 소개된 붓스트랩은 표본을 통계적으로 활용하여 모집단을 추론하는 반복표본추출 기법이며 비모수통계기법으로 200회 이상의 표본추출을 반복하면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얻을 수 있고 표본크기의 한계와 비현실적인 모수통계기법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Efron & Tibshirani, 1993; Efron, 1981).



<그림 3-4> 매개효과의 기본모형(Cole & Maxwell, 2003)

독립변인: Y_e , 매개변인: X_e , 종속변인: Z_e

4) 다변량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 간 비교 분석

집단 간 비교(Comparative analysis between groups)는 교차타당성을 활용한 분석방법으로 측정모형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다(Byrne, 2001).

다변량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 간 비교 분석은 각 집단 간 반응 결과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측정 동일성 제약과 집단 간 경로계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는 집단 간 등가제약의 과정을 거친다(Byrne, 2001; MacCallum, Roznowski, & Reith, 1994).

측정동일성 제약(Metric Invariance Constraints)은 각 집단의 측정변수들이 동일한 수준에 있다는 가정 하에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집단 간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수준이면 집단 간에 교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집단 간의 회귀계수는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 2009).

집단 간 등가제약(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은 집단 간 경로계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성 제약 모형과 비 제약모형(기저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두 모형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 동일한 경로계수의 차이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간략히 요약하면 다변량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비교 분석과정은 형태동일성 검증,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 경로동일성 검증의 순차별 검증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형태동일성 검증은 연구자의 설정 모형을 비교 집단별로 나누어 모형의 적합성을 비교검증 후 적합성이 확인되면 형태동일성 검증이 가능하고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은 각 잠재변수의 절편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형태동일성 검증의 적합도와의 비교를 통해,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은 각 잠재변수의 기울기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의 적합도와의 비교를 통해, 경로동일성 검증은 잠재변수 간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의 적합도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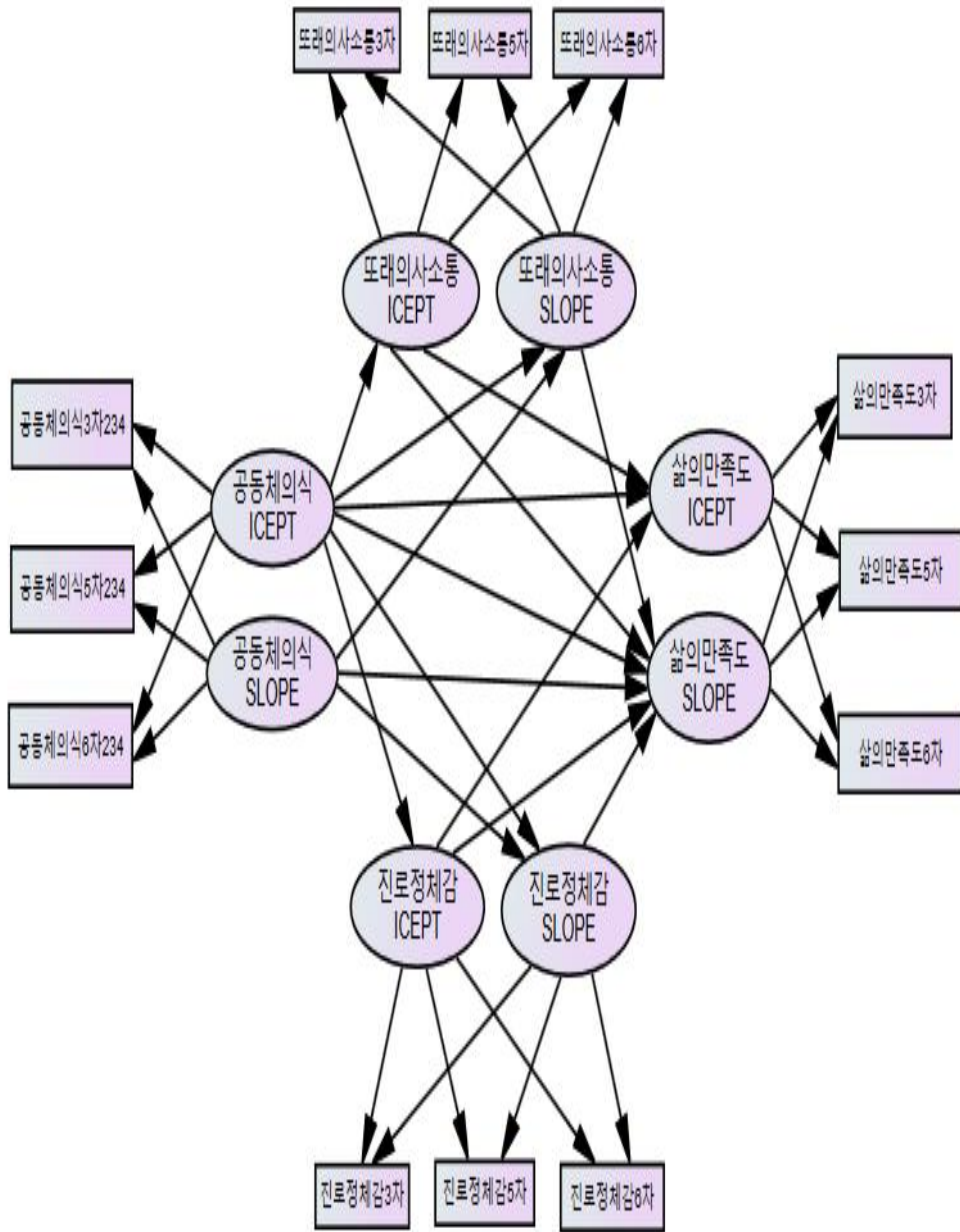
1) 변수의 선정

청소년의 높은 삶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발달에 대한 보호요인인 동시에 성인기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할 수 있으며(Diener, 1994) 신체적·심리적·인지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불안정한 청소년기는(김소영·윤기봉, 2016) 성인과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Park, 2005)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더불어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이후 공부중심의 교내 활동에서 벗어나 활동 중심의 교외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공동체의식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청소년은 자신의 현실과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이러한 고민들을 자신과 친숙한 또래를 통해 지지 받고 위로받으려한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중요한 진로정체감과 또래의사소통의 두 변수들이 미래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고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의 설정

확정된 잠재성장모형으로 이루어진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각각의 종단적 성장 변화, 각각의 성장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성장변화 관계와 또래의사소통과 진로 정체감의 종단매개효과 및 성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3-5>와 같다.



<그림 3-5> 다변량잠재성장 연구모형

3. 연구가설

다변량 잠재성장 연구모형의 근거 하에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각각의 종단적 성장변화는 어떠한가?

가설 1.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1.1-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1.1-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1.2.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1.2-1.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1.2-2.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1.3.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래의사소통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1.3-1.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래의사소통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1.3-2.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래의사소통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1.4.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정체감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1.4-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정체감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1.4-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정체감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각각의 성장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성장변화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2.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3.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3.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3.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1.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2.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3.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진로정체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5-1.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5-2.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5-3.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중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3.1. 공동체의식은 또래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공동체의식은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4. 공동체의식이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에,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가설 4.1. 공동체의식이 또래의사소통에, 또래의사소통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공동체의식이 진로정체감에,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2절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이하 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의 중1 자료 가운데 3차년도(2012년 중3), 5차년도(2014년 고2), 6차년도(2015년 고3)의 3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자료는 교육부 학교통계(2009) 표본을 표집틀로 하고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⁵⁾에 의해 수집된 초1, 초4, 중1의 중다패널 대상을 7년간(2010년~2016년)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

수집된 자료는 횡단분석, 종단비교 분석, 시계열분석의 3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시점에서의 동일한 연령집단 및 상이한 연령집단 간 유사성과 차이점 분석(횡단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정한 연령집단의 특성과 성격의 변화분석(종단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정한 연령집단의 성장 발달 과정분석(시계열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표본으로 선택된 청소년 중학교 1학년 2351명 중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설문 문항에 모두 응답한 1989명(남 1008명, 여 981명)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인의 변화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다변량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5)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은 확률표집의 층화추출법과 집락추출법을 혼용하여 사용한 방법으로 집락(cluster)을 표본추출 단위로 하여 모집단을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눈 후 단순무작위추출법에 따라 배정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박희서·김구, 2006).

제3절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삶의 만족도, 공동체의식, 또래와의 의사소통, 진로정체감에 관한 질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등(2006)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KCYPS 자료 중1패널의 3차년, 5차년, 6차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문항에 대한 응답 3문항 중 탐색적 요인분석 시 탈락한 1문항을 제외하고 2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3차(중3)의 Cronbach's α=.826, 5차(고2)의 Cronbach's α=.816, 6차(고3)의 Cronbach's α=.862로 3개년도에서 .816에서 .862범위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구체적인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삶의 만족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문항수: 2문항	척도: 4점척도	신뢰도Cronbach'α		
		3차	5차	6차
1. 나는 사는 것이 즐겁다*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826	.816	.862
2. 내 삶은 행복하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는 역처리 문항

2.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권혜원(2003)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KCYPS자료 중1학년의 3차년, 5차년, 6차년 데이터 중 공동체의식의 문항에 대한 응답 4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신뢰도(Cronbach'α)는 3차(중3)의 Cronbach'α=.814, 5차(고2)의 Cronbach'α=.741, 6차(고3)의 Cronbach'α=.731로 3개년도에서 .731에서 .814의 범위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의 구체적인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공동체의식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문항수: 4문항	척도: 4점척도	신뢰도Cronbach'α		
		3차	5차	6차
1.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2. 공휴일이라도 복지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814	.741	.731
3.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4. 쓰레기 분리수거, 물자절약,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를 보호할 것이다*				

*는 역처리 문항

3. 또래의사소통

또래의사소통은 Armsden & Greenberg의 애착척도(IPPA)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KCYPS 자료 중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4차년도 자료를 제외한 중1패널의 3차년, 5차년, 6차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래의사소통의 문항에 대한 응답 3문항 중 탐색적 요인분석 시 탈락한 1문항을 제외하고 2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의사소통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3차(중3)의 Cronbach's α=.871, 5차(고2)의 Cronbach's α=.874, 6차(고3)의 Cronbach's α=.849로 3개년도에서 .849에서 .874범위로 나타났다. 또래의사소통의 구체적인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또래의사소통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문항수: 2문항	척도: 4점 척도	신뢰도Cronbach'α		
		3차	5차	6차
1. 이야기를 나눌 때 친구들은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1점: 매우 그렇다	.871	.874	.849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2.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준다.*	1점: 매우 그렇다	.871	.874	.849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는 역처리 문항

4.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공인규(2008)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KCYPS 자료 중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4차년도 자료를 제외한 중1패널의 3차년, 5차년, 6차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진로정체감의 문항에 대한 응답 8문항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탈락한 2문항과 신뢰도분석에서 탈락한 1문항을 제외하고 5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신뢰도(Cronbach'α)는 3차(중3)의 Cronbach'α=.909, 5차(고2)의 Cronbach'α=.901, 6차(고3)의 Cronbach'α=.900으로 3개년도에서 .900에서 .909의 범위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의 구체적인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진로정체감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문항수: 5문항	척도: 4점척도	신뢰도 Cronbach'α		
		3차	5차	6차
1. 내가 미래에 꼭 하고 싶은 직업분야가 있다*				
2. 나는 미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1점 매우그렇다			
3.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2점 그런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다	.909	.901	.900
4. 현재 나는 좋아하는 직업분야가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는 역처리 문항

제4절 자료의 분석방법

1. 분석절차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인의 변화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에 따라 측정된 종단자료의 변화 형태를 확인하고자 사용하는 분석방법으로, 종단자료 분석만을 위해 개발된 특성을 지닌다(Curran, Bauer & Willoughby, 2004).

잠재성장모형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와 성장,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들 간 관계를 모형화할 수 있고 세 번 이상 측정된 종단자료를 활용해 개인이나 집단의 변화량을 파악할 수 있다(Duncan, Duncan & Strycker,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변수들의 변화와 변수들 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성별에 따른 집단비교를 실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AMOS 23.0과 SPSS 23.0을 사용하였다. 분석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성의 Cronbach's α 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전체시점이 3차 시점이므로 무변화모형과 일차함수의 선형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검증한 후 최종적인 잠재성장모형을 결정하였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위해 편향되지 않는 추정치를 나타내주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이하 FIML: 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Muthén, Kaplan & Hollis, 198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평가는 카이제곱 차이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카이제곱 차이검증은 표본 수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쉽게 가설을

기각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모형을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주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CFI > .90$ (Bentler, 1990), $TLI > .90$ 일 때 좋은 적합도(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RMSEA는 $RMSEA < .05$ 일 때 좋은 적합도, $RMSEA < .08$ 일 때 괜찮은 적합도, $RMSEA < 1.0$ 일 때 보통 적합도, $RMSEA > .10$ 일 때 나쁜 적합도이다(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 $CFI > .90$, $TLI > .90$, $RMSEA < .08$ 을 기준으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결정된 잠재성장모형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와 변화를 확인하였다.

넷째, 매개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붓스트랩을 적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의 간접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성별 집단 비교를 위해 형태 동일성 검증, 절편의 평균 동일성 검증, 기울기의 평균 동일성 검증, 경로 동일성 검증을 순서대로 실시하고(Hong, Malik & Lee, 2003)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자료처리 방법

1) 변수의 결측치 정규성 확인

결측자료(missing data)는 연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AMOS에서는 결측자료를 사용할 경우 입력자료의 행렬계산이나 추정 등 분석하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결측치를 처리한 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배병렬, 2011).

결측치는 특정 변수에 대하여 10%까지 누락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결측치 처리방법은 분석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측치 유형과 비율 및 체계적 결측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Cohen & Cohen, 1983).

결측치가 있을 경우 FIML방식은 MAR(Missing At Random: 무선결측)가정이 엄격히 충족되지 않아도 편향되지 않는 추정치를 나타내주므로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선택된 변수들과 관련된 질문문항에 모두 응답한 1989명(남 1008명, 여 981명)을 대상으로 FIML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정규성 확인

잠재성장모형(SEM)은 연속변수에 대한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으며 비정규성은 왜도와 첨도의 일변량정규성과 다변량정규성의 두 가지 수준에서 나타난다. 왜도(skewness)는 자료의 대칭성 정도를, 첨도(kurtosis)는 정규분포곡선에 대한 상대적인 점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각 시점의 측정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모두 왜도(절대값 2미만), 첨도(절대값 4미만)으로 정규분포조건(Hong, Malik & Lee, 2003)을 만족하였다. 정규성은 각 변수별 기술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타당도(Validity) 검증

본 연구의 타당도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실시하여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모든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잠재변수를 관측변수가 정확히 측정했는가에 대한 것으로 내용타당도, 기준관련타당도,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개념타당도 등이 있으며 개념 타당도는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법칙타당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개념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3가지(집중, 판별, 법칙)타당도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배병렬, 2011).

개념타당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노경섭, 2016; 배병렬, 2011).

첫째, 법칙타당도(nomological validity)는 이해타당도라고도 하며 구성개념들

사이에 이론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잠재변수 간 가설적 관계방향이 실제 자료의 방향과 일치하는가의 문제로 이론이나 가설에서의 개념 간 법칙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수렴타당도라고도 하며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측정치들 간 상관관계가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한 집중타당성 검증은 표준화 $\lambda > .5$, 평균분산추출(AVE) $> .5$, 개념신뢰도(C.R.) $> .7$ 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평균분산추출(이하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개념신뢰도(이하 C.R.: construct reliability)는 잠재변수 표준화적재량(표준회귀계수)과 측정오차의 분산 표준화적재량(오차분산)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AVE값을 구하는 방법은 식1과 식2에 제시하였다. $AVE \geq .5$ 는 50%이상의 설명력을 가져야함을 의미한다.

$$AVE = \frac{\sum \text{표준화}\lambda^2}{\sum \text{표준화}\lambda^2 + \sum \text{오차계수}} \geq .5 \quad \dots\dots\dots(\text{식1})$$

$$AVE = \frac{\sum (\text{표준화적재량}^2)}{\sum (\text{표준화적재량}^2) + (\sum \text{측정변수의 오차})} \geq .5 \quad \dots\dots(\text{식2})$$

타당성검증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설정모형의 적합도에서 비표준화 λ (Regression Weights Estimate)의 C.R.(critical ratio)값이 $p < .05$ 기준으로 1.96이상이어야 한다. C.R.값을 구하는 방법은 식3과 식4에 제시하였다.

$$C. R. = \frac{(\sum \text{표준화}\lambda)^2}{(\sum \text{표준화}\lambda)^2 + \sum \text{오차계수}} \geq .7 \quad \dots\dots\dots(\text{식3})$$

$$C. R. = \frac{(\sum \text{표준화적재량})^2}{(\sum \text{표준화적재량})^2 + (\sum \text{측정변수의 오차})} \geq .7 \quad \dots\dots\dots(\text{식4})$$

셋째,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서로 다른 구성개념에 대해 서로의 개념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측정치들 간 상관관계가 낮아야함을 의미한다.

판별타당도 검증방법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는 평균분산추출(AVE)는 상관계수(ρ)의 제곱보다 커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표준오차(이하 S.E: standard error)의 2배에 상관계수(ρ)를 더한 값이 1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판별타당도 검증방법은 식5, 식6과 같다.

$$AVE > \rho^2 = \frac{\sum(\text{표준화적재량}^2)}{\sum(\text{표준화적재량}^2) + (\sum\text{측정변수의오차})} > \rho^2 \dots\dots\dots(\text{식5})$$

$$\text{상관계수}(\rho) \pm 2 \cdot \text{표준오차(S.E.)} \neq 1 \dots\dots\dots .(\text{식6})$$

제 4 장 실증분석

제1절 연구대상의 특성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KCYPS자료에서 진로정체감과 또래의사소통 변수에 대한 조사가 4차년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를 위해 선택된 모든 변수들에 대해 3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자료를 각각 1차 시점, 2차 시점, 3차 시점으로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기술통계

삶의 만족도,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네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조사 시점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증하였다.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조사 시점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해보았다.

삶의 만족도는 1차 시점 3.0121에서 3차 시점 3.0606까지 감소와 상승의 변화

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절대값 2미만), 첨도 (절대값 4미만)으로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의 변화경향 등 측정 시점별 기술통계는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삶의 만족도의 기술통계

N=1989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삶의 만족도 1차시점(중3)	3.0121	.67609	-.332	.044
삶의 만족도 2차시점(고2)	3.0103	.59573	-.292	.422
삶의 만족도 3차시점(고3)	3.0606	.62112	-.346	.376

2)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조사 시점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해보았다.

확인적요인분석에서 탈락한 1문항을 제외한 공동체의식의 평균은 1차 시점 2.7748에서 3차시점 2.9194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절대값 2미만), 첨도 (절대값 4미만)으로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공동체의식의 평균값의 변화경향 등 측정 시점별 기술통계는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공동체의식의 기술통계

N=1989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공동체의식 1차시점(중3)	2.7748	.64873	-.217	.361
공동체의식 2차시점(고2)	2.9157	.55754	-.195	.807
공동체의식 3차시점(고3)	2.9194	.55909	-.085	.687

3) 또래와의 의사소통

또래의사소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조사 시점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해보았다.

또래의사소통은 1차 시점 3.0764에서 3차시점 3.1533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절대값 2미만), 첨도 (절대값 4미만)으로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또래의사소통의 평균값의 변화경향 등 측정 시점별 기술통계는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또래의사소통의 기술통계

N=1989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또래의사소통 1차시점(중3)	3.0764	.52665	-.194	1.505
또래의사소통 2차시점(고2)	3.1531	.45031	.422	1.314
또래의사소통 3차시점(고3)	3.1533	.46897	.197	1.553

4)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조사 시점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해보았다.

진로정체감은 1차 시점 2.9360에서 3차 시점 3.0171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절대값 2미만), 첨도 (절대값 4미만)으로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진로정체감의 평균값의 변화경향 등 측정 시점별 기술통계는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진로정체감의 기술통계

N=1989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정체감 1차시점(중3)	2.9360	.72148	-.200	-.625
진로정체감 2차시점(고2)	2.9491	.67846	-.124	-.636
진로정체감 3차시점(고3)	3.0171	.67985	-.216	-.592

3.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관련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상호관련성의 방향과 정도를 상관계수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상관계수는 변수들 간 방향과 관계정도를 수치로 나타내주는 지수를 의미한다(박희서·김구, 2006). 상관분석결과 상관계수가 .089에서 .536까지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P < .01$) 모든 변수들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

제2절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 설정과 성장변화

잠재성장모형의 검증방법은 χ^2 검증과 적합도 검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는 적합도 검증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χ^2 검증이 표본크기에 민감해 영가설이 쉽게 기각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기 때문이다(김주환·김민규·진영재, 2008).

<표 4-5>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N=1989	CC3	CC5	CC6	LS3	LS5	LS6	PC3	PC5	PC6	CI3	CI5	CI6
CC3	1											
CC5	.366 **	1										
CC6	.345 **	.480 **	1									
LS3	.226 **	.116 **	.105 **	1								
LS5	.138 **	.185 **	.145 **	.415 **	1							
LS6	.100 **	.128 **	.212 **	.347 **	.536 **	1						
PC3	.274 **	.164 **	.149 **	.323 **	.202 **	.163 **	1					
PC5	.147 **	.259 **	.227 **	.195 **	.329 **	.224 **	.327 **	1				
PC6	.110 **	.180 **	.304 **	.159 **	.226 **	.295 **	.220 **	.372 **	1			
CI3	.218 **	.177 **	.160 **	.311 **	.197 **	.200 **	.196 **	.208 **	.152 **	1		
CI5	.104 **	.231 **	.203 **	.131 **	.231 **	.224 **	.099 **	.238 **	.206 **	.427 **	1	
CI6	.089 **	.181 **	.261 **	.149 **	.166 **	.299 **	.104 **	.166 **	.254 **	.331 **	.535 **	1

주1. ** $p < .01$

주2. CC=공동체 의식, LS=삶의 만족도, PC=포레 의사소통, CI=진로정체감
3=3차년도 중3, 5=5차년도 고2, 6=6차년도 고3

본 연구의 자료들은 3차 시점의 비동등 시간간격자료이므로 무변화모형과 일차함수의 선형변화모형을 비교 검증한 후 적합도지수가 좋은 모형을 최종적으로 잠재성장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선행연구(정윤화·봉초은·홍세희, 2018; 조한익·김영숙, 2016; Wickrama et al., 2016)를 근거로 선형변화모형은 초기치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s)을 모두 1로 고정하고 일차변화율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s)은 0, 2, 3으로 고정하였으며 무변화모형은 초기치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s)을 모두 1로 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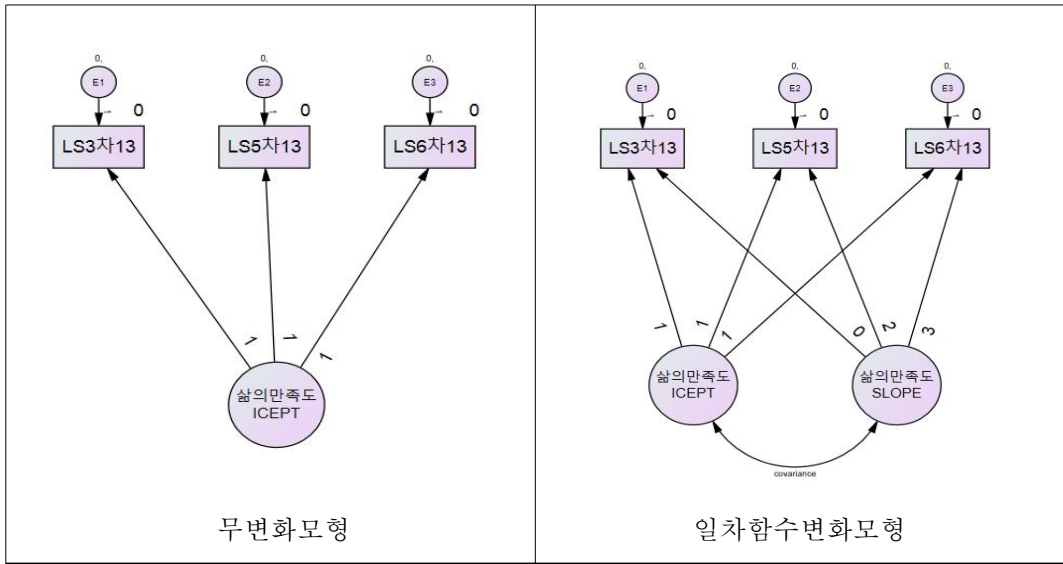
1. 삶의 만족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별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무변화모형과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검증 한 결과 무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073, TLI=.971, CFI=.962을 나타내고,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062, TLI=.979, CFI=.993을 나타내어 적합도가 더 좋게 나타난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 선택을 위한 모형비교는 다음 <그림 4-1>과 같고 각 모형별 적합도 지수 비교는 다음 <표 4-6>에 제시하였다.

<표 4-6> 삶의 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χ^2 (p)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45.960(.000)	4	.971	.962	.073
일차함수변화모형	8.668(.000)	1	.979	.993	.062



<그림 4-1> 삶의 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표 4-6>과 같이 삶의 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은 무변화모형과 일차함수변화모형 모두 RMSEA<.08로 괜찮은 적합도, TLI와 CFI는 >.90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두 모형 가운데 적합도가 더 좋은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선택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는 다음 <표 4-7>에 제시하였다.

<표 4-7> 삶의 만족도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선택된 모형	모수	평균	분산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일차함수 변화모형	초기값	3.002***	.209***	-.021*
	변화율	.015**	.016***	

*** $p < .001$, ** $p < .01$, * $p < .05$

<표 4-7>과 같이 삶의 만족도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으로 선택된 일차함수변화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값의 평균은 3.002, 초기값의 분산은 .209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은 .015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변화율의 분산은 .016으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021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 공동체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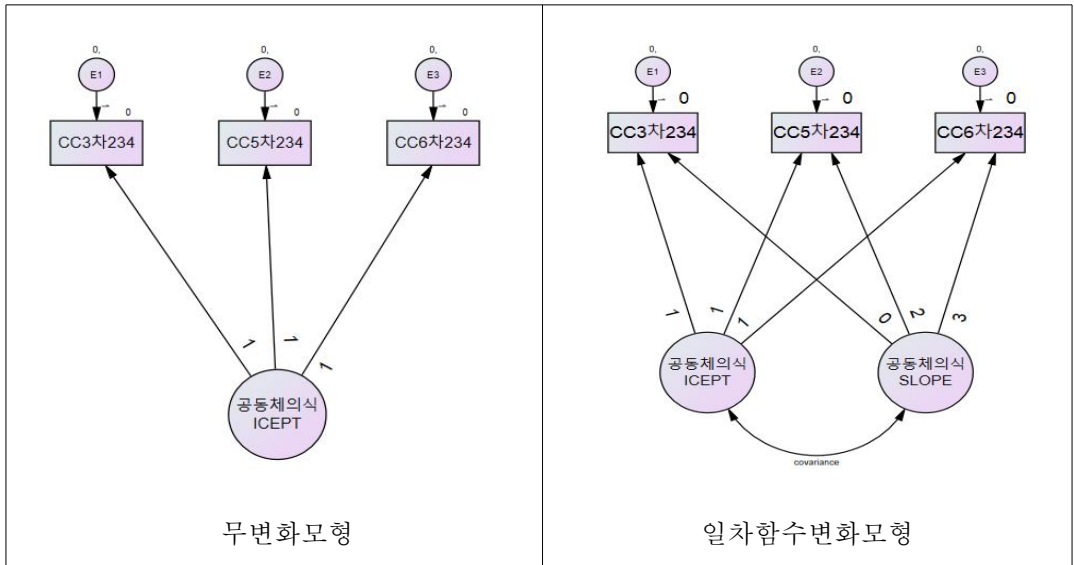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동체의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별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무변화모형과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검증 한 결과 무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117, TLI=.908, CFI=.878을 나타내고,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083, TLI=.953, CFI=.984를 나타내어 적합도가 더 좋게 나타난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공동체의식의 잠재성장모형 선택을 위한 모형비교는 다음 <그림 4-2>와 같고 각 모형별 적합도 지수 비교는 다음 <표 4-8>에 제시하였다.

<표 4-8> 공동체의식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χ^2 (p)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112.735(.000)	4	.908	.878	.117
일차함수변화모형	14.858(.000)	1	.953	.984	.083

<표 4-8>과 같이 공동체의식의 잠재성장모형은 RMSEA<.10로 보통 적합도, TLI와 CFI는 >.90으로 무변화모형보다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선택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공동체의식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다음 <표 4-9>에 제시하였다.



<그림 4-2> 공동체의식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표 4-9>와 같이 공동체의식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으로 선택된 일차함수변화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값의 평균은 2.790, 초기값의 분산은 .145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은 .049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변화율의 분산은 .006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007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9> 공동체의식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선택된 모형	모수	평균	분산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일차함수 변화모형	초기값	2.790***	.145***	-.007
	변화율	.049***	.006*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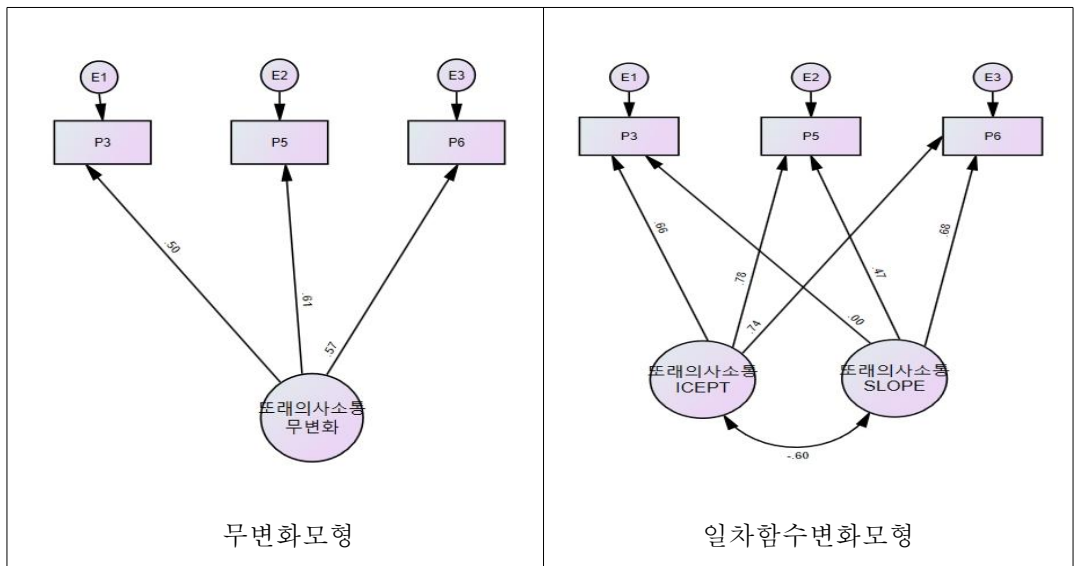
3. 또래의사소통

시간의 경과에 따라 또래의사소통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별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무변화모형과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검증한 결과 무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085, TLI=.921, CFI=.894을 나타내고,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052, TLI=.970, CFI=.990을 나타내어 적합도가 더 좋게 나타난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또래의사소통의 잠재성장모형 선택을 위한 모형비교는 다음 <그림 4-3>과 같고 각 모형별 적합도 지수 비교는 다음 <표 4-10>에 제시하였다.

<표 4-10> 또래의사소통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χ^2 (p)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61.529(.000)	4	.921	.894	.085
일차함수변화모형	6.432(.000)	1	.970	.990	.052



<그림 4-3> 또래의사소통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표 4-10>과 같이 또래의사소통의 잠재성장모형은 RMSEA<.008 로 괜찮은 적합도, TLI와 CFI는 >.90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무변화모형보다 적합도가 더 좋은 일차함수 변화모형을 선택하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또래의사소통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는 다음 <표 4-11>에 제시하였다.

<표 4-11> 또래의사소통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선택된 모형	모수	평균	분산	초기값↔변화율 공분산(표준오차)
일차함수 변화모형	초기값	3.083***	.123***	-.023***
	변화율	.027***	.012***	

*** $p < .001$

<표 4-11>과 같이 또래의사소통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으로 선택된 일차함수 변화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값의 평균은 3.083, 초기값의 분산은 .123으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은 .027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변화율의 분산은 .012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023$ 으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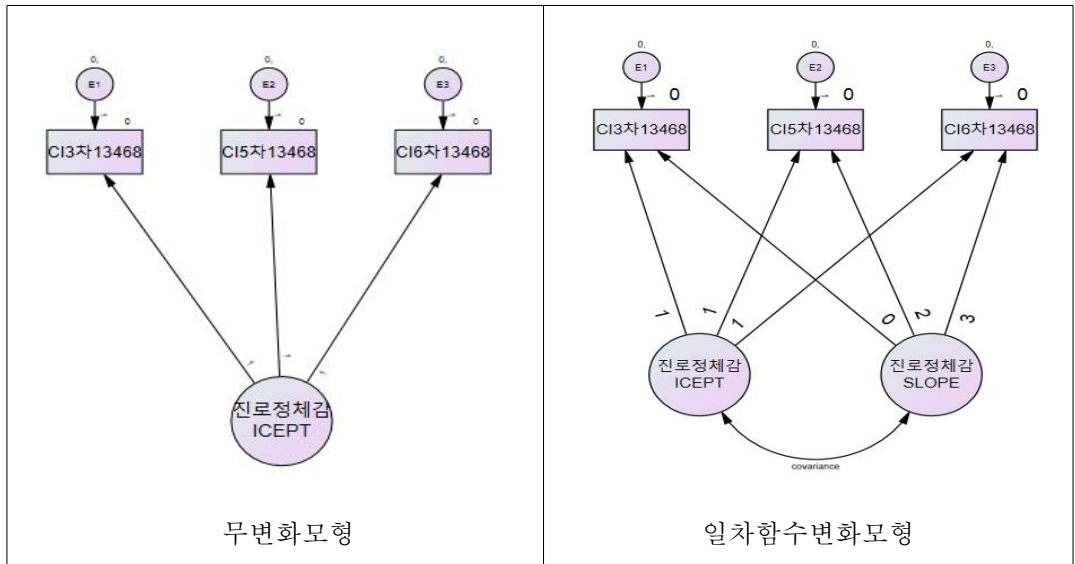
4. 진로정체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별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무변화모형과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검증 한 결과 무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100, TLI=.946, CFI=.928을 나타내고,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068, TLI=.975, CFI=.992를 나타내어 적합도가 더 좋게 나타난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 선택을 위한 모형비교는 다음 <그림 4-4>와 같고 각 모형별 적합도 지수 비교는 다음 <표 4-12>에 제시하였다.

<표 4-12>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χ^2 (p)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83.619(.000)	4	.946	.928	.100
일차함수변화모형	10.177(.000)	1	.975	.992	.068



<그림 4-4>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표 4-12>의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은 RMSEA<.08 권람은 적합도, TLI와 CFI는 >.90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무변화모형보다 적합도가 더 좋은 일차함수 변화모형을 선택하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진로정체감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는 다음 <표 4-13>에 제시하였다.

<표 4-13> 진로정체감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선택된 모형	모수	평균	분산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일차함수 변화모형	초기값	2.927***	.301***	-.046***
	변화율	.025***	.029***	

*** $p < .001$

<표 4-13>과 같이 진로정체감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으로 선택된 일차함수변화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값의 평균은 2.927, 초기값의 분산은 .301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은 .025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변화율의 분산은 .029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046으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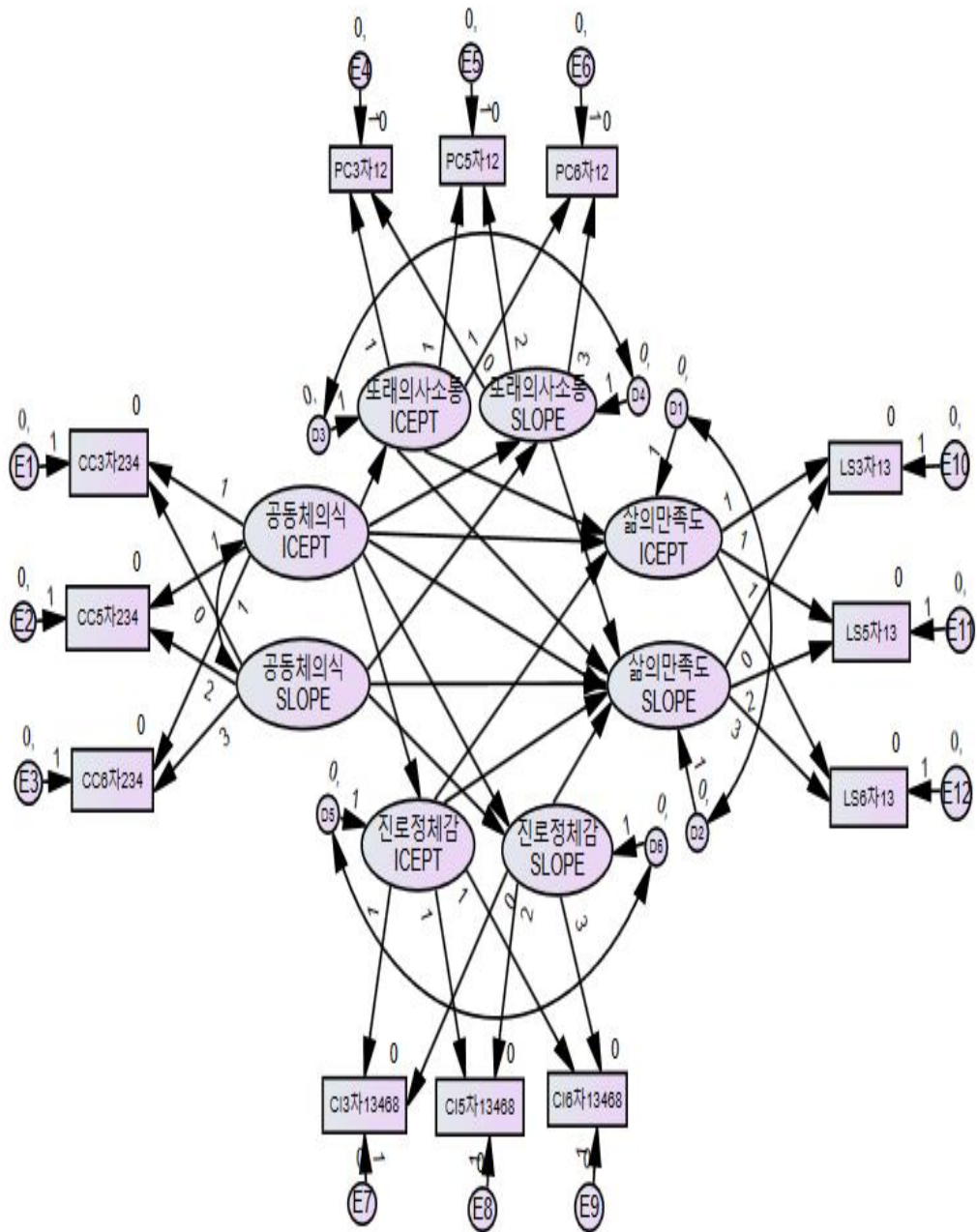
제3절 다변량잠재성장모형 분석

1.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

세 시점의 잠재변수인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에 대해 무변화모형,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네 변수 모두 적합도가 좋은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최종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의 일차함수변화 모형을 적용한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구성하여 각 변인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형태를 추정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모형을 검증한 결과 간명성을 고려한 TLI가 .9이상, RMSEA가 .08이하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였다. 본 연구가 개발한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의 연구모형과 적합도는 다음 <그림 4-5>와 <표 4-14>와 같다.



<그림 4-5>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

< 표 4-14 >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 (p)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336.822(.000)	43	.914	.944	.059

2.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 .08$, $TLI > .90$, $CFI > .90$ 으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여 그에 따른 경로계수를 추정하였다.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 4-15>에 제시하였다. <표 4-15>의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초기값과 진로정체감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P < .001$) 정적인 영향($B = .453$, $\beta = .552$ / $B = .555$, $\beta = .419$)을 미쳤으나 변화율에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과 진로정체감 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하게($P < .001$) 정적인 영향($B = .645$, $\beta = .685$ / $B = .879$, $\beta = .545$)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공동체의식의 변화율 또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P < .001$) 정적인 영향($B = .754$, $\beta = .584$)을 미치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섯째,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미하게($P < .01$) 정적인 영향($B = .879$, $\beta = .750$)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P < .001$) 정적인 영향($B = .277$, $\beta = .347$)을 미치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일곱째, 진로정체감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하게($P < .001$) 정적인 영향($B = .222$, $\beta = .325$)을 미치고 있었다.

<표 4-15>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B	S.E	C.R	p	β
공동체 의식 초기값 → 또래의사소통 초기값	.453	.037	12.091	***	.552
공동체 의식 초기값 →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012	.018	-.683	.494	-.048
공동체 의식 변화율 →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645	.062	10.476	***	.685
공동체 의식 초기값 → 진로정체감 초기값	.555	.051	10.970	***	.419
공동체 의식 초기값 → 진로정체감 변화율	-.010	.024	-.423	.673	-.023
공동체 의식 변화율 → 진로정체감 변화율	.879	.091	9.659	***	.545
공동체 의식 초기값 → 삶의만족도 초기값	-.035	.066	-.532	.594	-.033
공동체 의식 초기값 → 삶의만족도 변화율	-.016	.031	-.503	.615	-.053
공동체 의식 변화율 → 삶의만족도 변화율	-.202	.249	-.814	.416	-.183
또래의사소통 초기값 → 삶의만족도 초기값	.754	.090	8.412	***	.584
또래의사소통 초기값 → 삶의만족도 변화율	.023	.049	.468	.640	.064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 삶의만족도 변화율	.879	.280	3.146	**	.750
진로정체감 초기값 → 삶의만족도 초기값	.277	.037	7.517	***	.347
진로정체감 초기값 → 삶의만족도 변화율	-.002	.015	-.120	.904	-.008
진로정체감 변화율 → 삶의만족도 변화율	.222	.061	3.649	***	.325

*** $p < .00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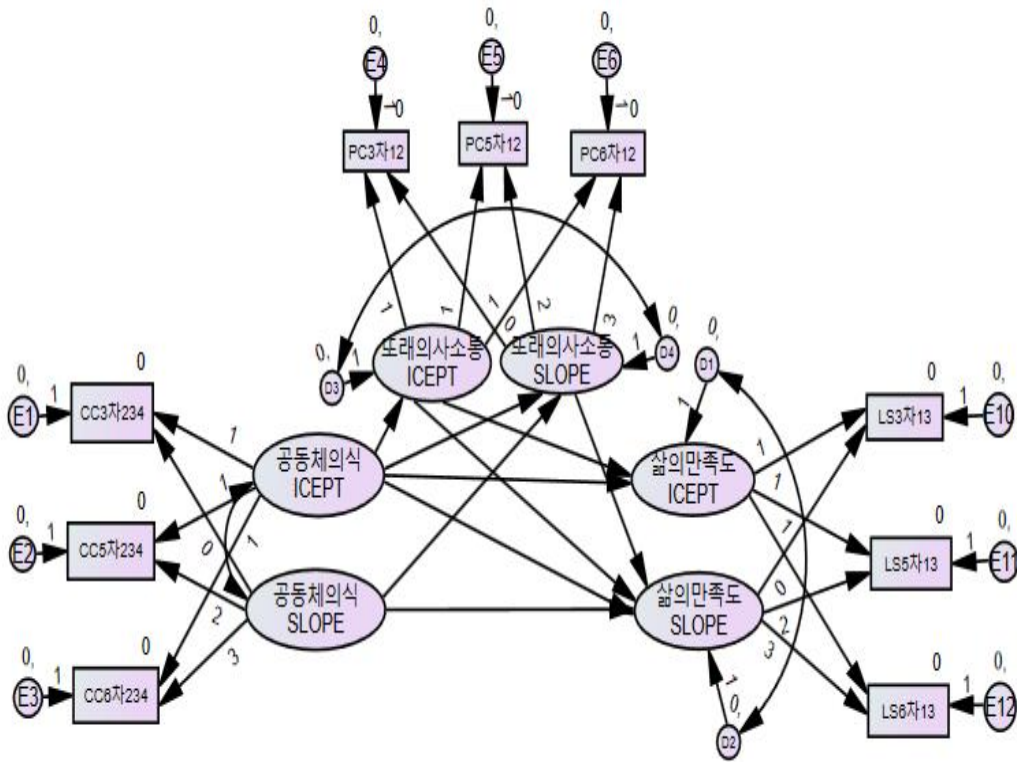
3.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 매개효과

잠재성장매개효과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변수에 대한 개인 내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개인 간 차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요 변수들 간의 변화 관계에서 시간적 선행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김동하, 2014).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잠재외생변인으로 설정하고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를 잠재내생변인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변수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의 종단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매개모형을 설정하고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2000회 이상, 95% 신뢰구간의 붓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붓스트랩 검증 시 편의 조정된 붓스트랩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효과는 유의하다(Preacher & Hayes, 2004).

1) 또래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4-6>과 같이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RMSEA는 .056으로 괜찮은 적합도(RMSEA<.08), TLI는 .937로 좋은 적합도(TLI>.90), CFI는 .963으로 좋은 적합도(CFI>.90)를 나타내어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적합도 지수와 그에 따른 경로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4-16>, <표 4-17>에 제시하였다. 붓스트랩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과분해결과는 <표 4-18>에 제시하였다.



<그림 4-6>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

<표 4-16>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 (p)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150.845(.000)	21	.937	.963	.056

<표 4-17>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B	S.E.	C.R.	P	β
공동체의식 초기값 → 또래의사소통 초기값	.421	.038	11.021	***	.540
공동체의식 초기값 →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015	.017	-.868	.385	-.063
공동체의식 변화율 →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558	.066	8.492	***	.682
또래의사소통 초기값 → 삶의만족도 초기값	.860	.092	9.401	***	.664
또래의사소통 초기값 → 삶의만족도 변화율	.025	.049	.501	.616	.072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 삶의만족도 변화율	1.055	.306	3.449	***	.926
공동체의식 초기값 → 삶의만족도 초기값	.066	.059	1.119	.263	.065
공동체의식 초기값 → 삶의만족도 변화율	-.013	.028	-.468	.640	-.048
공동체의식 변화율 → 삶의만족도 변화율	-.114	.205	-.556	.578	-.122

*** $p < .001$, ** $p < .01$, * $p < .05$

<표 4-17>의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 ($P < .001$) 정적인 영향($B = .421$, $\beta = .54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B = -.015$, $\beta = -.063$)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하게 ($P < .001$) 정적인 영향($B = .558$, $\beta = .682$)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B=.860, \beta=.66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B=.025, \beta=.072$)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여섯째,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B=1.055, \beta=.92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정적인 영향($B=.066, \beta=.065$)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여덟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B=-.013, \beta=-.048$)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아홉째,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B=-.114, \beta=-.122$)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표 4-18>, <표 4-19>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 효과를 분해하고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66(95% CI 하한 -.051, 상한 .180)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는 .363(95% CI 하한 .280, 상한 .484), 총효과는 .428(95% CI 하한 .348, 상한 .516)으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하였다.

둘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13(95% CI 하한 -.080, 상한 .047), 간접효과는 -.005(95% CI 하한 -.065, 상한 .059), 총효과는 -.018(95% CI 하한 -.057, 상한 .015)로 나타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공동체의식 변화율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14(95% CI 하한 -.955, 상한 .236)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간접효과는 .588(95% CI 하한 .322, 상한 1.519), 총효과는 .475(95% CI 하한 .343, 상한 .643)로 나타나 유의미하였다.

<표 4-18>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공동체 의식 초기값	→ 또래의사소통 초기값	.421**	.421**	.000
공동체 의식 초기값	→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015	-.015	.000
공동체 의식 변화율	→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558**	.558**	.000
또래의사소통 초기값	→ 삶의 만족도 초기값	.860**	.860**	.000
또래의사소통 초기값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25	.025	.000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1.055**	1.055**	.000
공동체 의식 초기값	→ 삶의 만족도 초기값	.428**	.066	.363**
공동체 의식 초기값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18	-.013	-.005
공동체 의식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475**	-.114	.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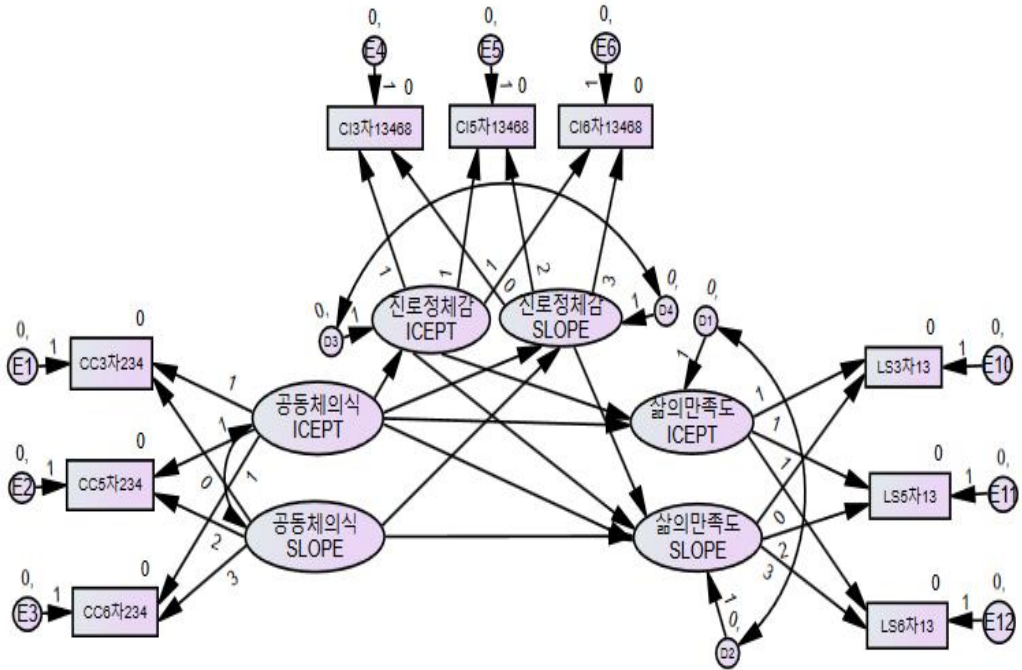
*** $p < .001$, ** $p < .01$, * $p < .05$

<표 4-19>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ias-corrected bootstrap		유의성 (p)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363	(.280, .484)	.001	
공동체의식 초기값 → 삶의 만족도 초기값	직접효과	.066	(-.051, .180)	.262
	총효과	.428	(.348, .516)	.001
간접효과	-.005	(-.065, .059)	.750	
공동체의식 초기값 → 삶의 만족도 변화율	직접효과	-.013	(-.080, .047)	.734
	총효과	-.018	(-.057, .015)	.273
간접효과	.588	(.322, 1.519)	.001	
공동체의식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직접효과	-.114	(-.955, .236)	.604
	총효과	.475	(.343, .643)	.001

2)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4-7>과 같이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RMSEA는 .058로 괜찮은 적합도(RMSEA<.08), TLI는 .939로 좋은 적합도(TLI>.90), CFI는 .964로 좋은 적합도(CFI>.90)를 나타내어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적합도 지수와 그에 따른 경로계수를 추정된 결과는 <표 4-20>, <표 4-21>에 제시하였다. 붓스트랩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결과는 다음 <표 4-22>에 제시하였다.



<그림 4-7> 진로정체감 매개모형

<표 4-20>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 (p)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159.239(.000)	21	.939	.964	.058

<표 4-21>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B	S.E.	t	P	β
공동체의식 초기값 → 진로정체감 초기값	.538	.054	9.970	***	.403
공동체의식 초기값 → 진로정체감 변화율	-.022	.024	-.904	.366	-.050
공동체의식 변화율 → 진로정체감 변화율	.795	.121	6.550	***	.503
진로정체감 초기값 → 삶의만족도 초기값	.336	.039	8.675	***	.412
진로정체감 초기값 → 삶의만족도 변화율	.001	.015	.078	.938	.005
진로정체감 변화율 → 삶의만족도 변화율	.239	.061	3.946	***	.335
공동체의식 초기값 → 삶의만족도 초기값	.267	.050	5.306	***	.245
공동체의식 초기값 → 삶의만족도 변화율	-.021	.020	-1.053	.292	-.070
공동체의식 변화율 → 삶의만족도 변화율	.333	.112	2.965	**	.295

*** $p < .001$, ** $p < .01$, * $p < .05$

<표 4-21>의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진로정체감 초기값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B = .538$, $\beta = .403$)을 미쳤다. 둘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진로정체감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B = -.022$, $\beta = -.050$)을 미쳤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진로정체감 변화율에($B = .795$, $\beta = .503$) 매우 유의미하게($P < .001$)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P < .001$) 정적인 영향($B = .336$, $\beta = .41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 ($B=.001, \beta=.005$)을 미쳤으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진로정체감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 ($B=.239, \beta=.335$)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B=.267, \beta=.245$)을 미쳤다. 여덟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B=-.021, \beta=-.07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아홉째,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미하게($P<.01$) 정적인 영향 ($B=.333, \beta=.29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표 4-23>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진로정체감 매개모형 효과를 분해하고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67(95% CI 하한 .158, 상한 .381), 진로정체감 초기값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는 .181(95% CI 하한 .130, 상한 .244), 총효과는 .448(95% CI 하한 .353, 상한 .546)으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하였다.

둘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21(95% CI 하한 -.063, 상한 .027), 진로정체감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05(95% CI 하한 -.024, 상한 .016), 총효과는 -.026(95% CI 하한 -.065, 상한 .014)로 나타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공동체의식 변화율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33(95% CI 하한.093, 상한 .693), 진로정체감 변화율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는 .190(95% CI 하한 .090 상한 .367), 총효과는 .523(95% CI 하한 .344, 상한 .804)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하였다.

<표 4-22>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공동체이식 초기값	→ 진로정체감 초기값	.538**	.538**	.000
공동체이식 초기값	→ 진로정체감 변화율	-.022	-.022	.000
공동체이식 변화율	→ 진로정체감 변화율	.795**	.795**	.000
진로정체감 초기값	→ 삶의만족도 초기값	.336**	.336**	.000
진로정체감 초기값	→ 삶의만족도 변화율	.001	.001	.000
진로정체감 변화율	→ 삶의만족도 변화율	.239*	.239*	.000
공동체이식 초기값	→ 삶의만족도 초기값	.448**	.267**	.181**
공동체이식 초기값	→ 삶의만족도 변화율	-.026	-.021	-.005
공동체이식 변화율	→ 삶의만족도 변화율	.523**	.333**	.190**

*** $p < .001$, ** $p < .01$, * $p < .05$

<표 4-23>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ias-corrected bootstrap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P
	간접효과	.181	(.130, .244)	.001
공동체의식 초기값 → 삶의 만족도 초기값	직접효과	.267	(.158, .381)	.001
	총효과	.448	(.353, .546)	.001
	간접효과	-.005	(-.024, .016)	.716
공동체의식 초기값 → 삶의 만족도 변화율	직접효과	-.021	(-.063, .027)	.346
	총효과	-.026	(-.065, .014)	.204
	간접효과	.190	(.090, .367)	.007
공동체의식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직접효과	.333	(.093, .693)	.005
	총효과	.523	(.344, .804)	.001

4.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 간 비교

적합성이 검증된 연구모형을 통해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의 집단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종단연구에서 잠재변수의 측정동일성은 각 변인이 측정하는 구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각 시점에 따라 잠재변인의 의미는 다르고 잠재변인의 변화가 시간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측정체계가 달라 나타난 현상이므로 변인 간 종단 비교가

불가하다(Little et al., 2007; Newsom, 2015).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측정 모형의 형태동일성,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이 순서대로 성립되어야 한다(Hong, Malik & Lee, 2003).

1) 기저모형의 적합성 검증

다변량 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914, CFI=.944, RMSEA=.059를 나타내어 TLI>.9, CFI>.9, RMSEA<.08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표 4-24>에 제시하였다.

<표 4-24>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χ^2 (p)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A	336.822(.000)	43	.914	.944	.059

2)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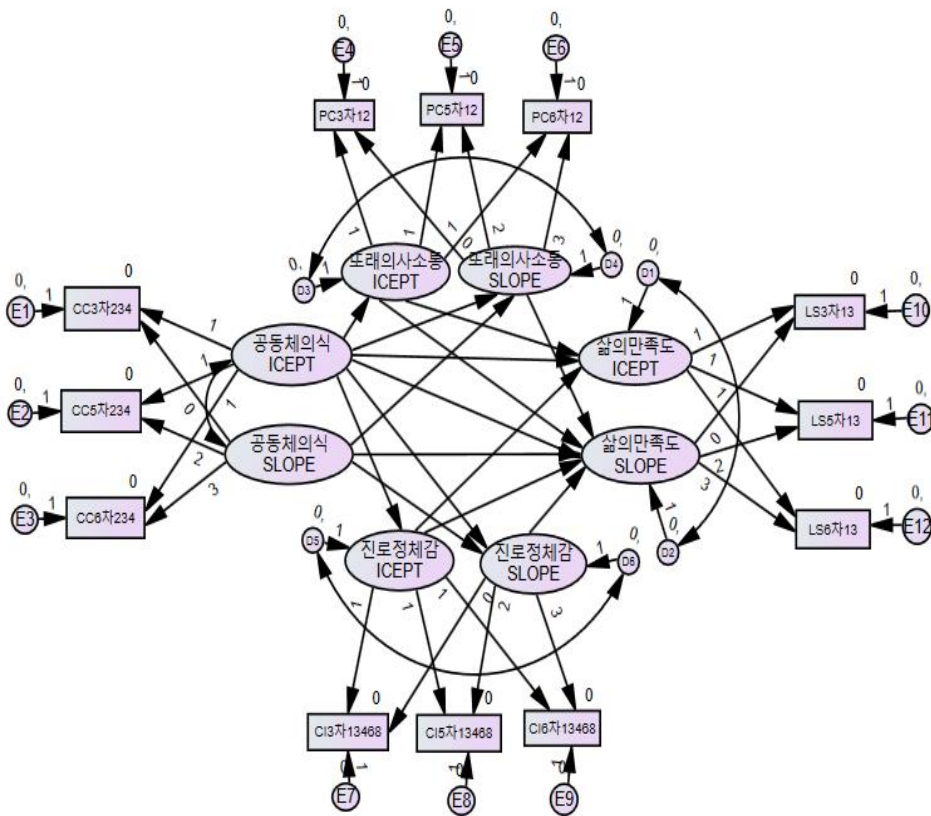
형태동일성은 매회 특정시점에서 측정변화요인과 잠재변화요인의 관계가 똑같은지 확인하는 것이다.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은 같은 모형이 집단에 적합해야 하고 비교측정모형이 같은지 평가한다.

형태동일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별로 경쟁모형들 간의 적합성을 분석한다. 그리하여 적합한 모형이 나타나면 형태동일성이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면 요인 적재치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측정 동일성 검증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Hong, Malik & Lee, 2003).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우선 연구모형을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의 2개의 집단으로 지정하여 비교하였다.

검증방법은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며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두 모형간의 차이검증을 위한 비교검증의 기준은 ΔCFI 가 .01이하인 경우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Cheung & Rensvold, 2002).

형태동일성 검증모형 A는 <그림 4-8>, 집단별 형태동일성 적합도 지수비교는 <표 4-25>에 제시하였다.



<그림 4-8> 형태동일성 검증모형 A

<표 4-25> 집단별 형태동일성 적합도 지수비교

적합도지수	χ^2 (p)	df	TLI(= NNFI)	CFI	RMSEA
형태동일성A	396.259(.000)	86	.909	.941	.043
남자집단	196.019(.000)	43	.911	.942	.059
여자집단	197.918(.000)	43	.909	.941	.061
남녀 지수차이(Δ)			-.002	-.001	.002

남자집단의 형태동일성 모형과 여자집단의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비교결과 적합도 지수들 모두 모형이 적합한 결과를 나타냈다. 남자집단의 형태동일성 모형과 여자집단의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차이는 Δ TLI=-.002, Δ CFI=-.001, Δ RMSEA=.002으로 나타나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의 적합도 차이가 없으므로 형태동일성이 성립하였다.

3)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 검증결과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의 모형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였으므로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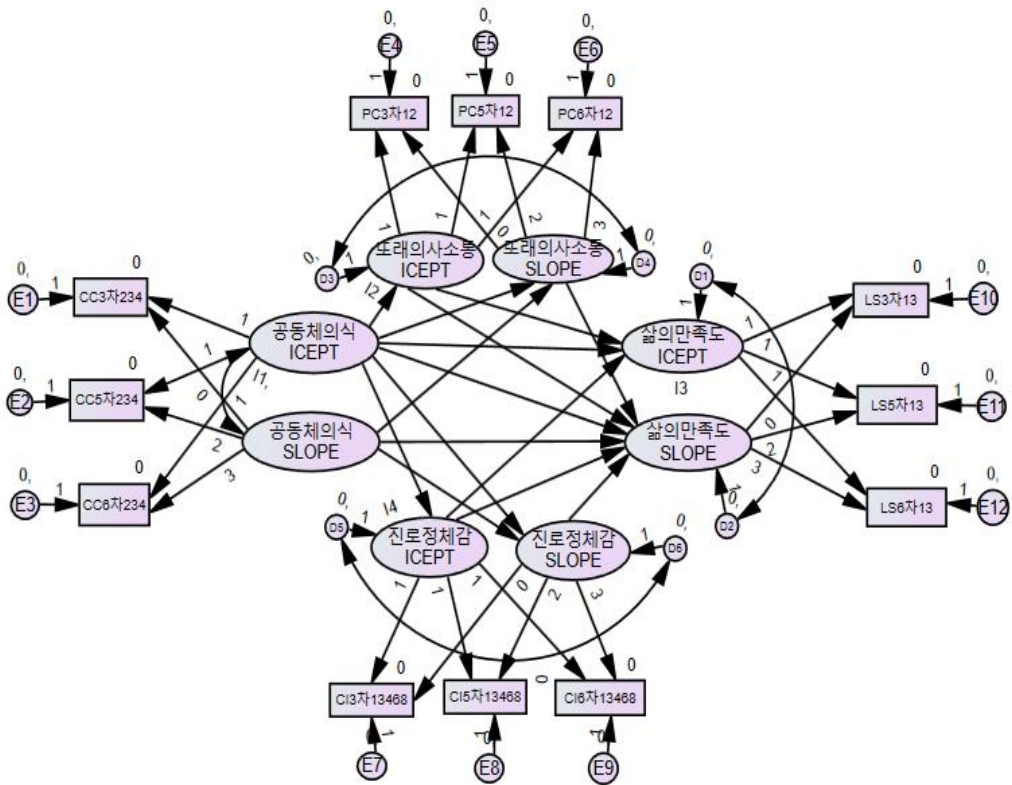
절편 동일성은 잠재변수에서 동일한 값을 갖는 사람은 속해있는 집단에 관계없이 같은 측정변수 값을 얻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측정변수의 절편(초기값)이 집단 간에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절편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면 관찰값의 차이가 잠재변수의 집단 간 차이를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은 각 변수의 초기값의 평균에 동일성 제약을 실시한

후 형태동일성이 검증된 모형(모형A)과 비교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형태동일성 모형(모형A)과 각 요인의 절편(초기값)까지 동일성 제약을 실시한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모형(모형B)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림 4-9>와 <표 4-26>에 제시한바와 같이 형태동일성 모형(모형A)와 절편 평균동일성 모형(모형B)의 적합도 비교결과 적합도 지수들 모두 모형이 적합한 결과를 나타냈다. 형태동일성 모형(모형A)와 절편 평균동일성 모형(모형B)의 적합도 지수차이는 $\Delta TLI=.000$, $\Delta CFI=-.003$, $\Delta RMSEA=.000$ 로 나타나 절편 평균동일성 모형(모형B)의 적합도 지수가 형태동일성 모형(모형A)에 비해 차이가 없으므로 절편의 평균동일성이 성립한다



<그림 4-9> 절편의 평균동일성 검증모형B

<표 4-26> 절편의 평균동일성 적합도 지수비교

모형	적합도지수	χ^2 (p)	df	TLI	CFI	RMSEA
A	형태동일성	396.259(.000)	86	.909	.941	.043
B	절편 평균동일성	414.641(.000)	90	.909	.938	.043
지수 차이(Δ)				.000	-.003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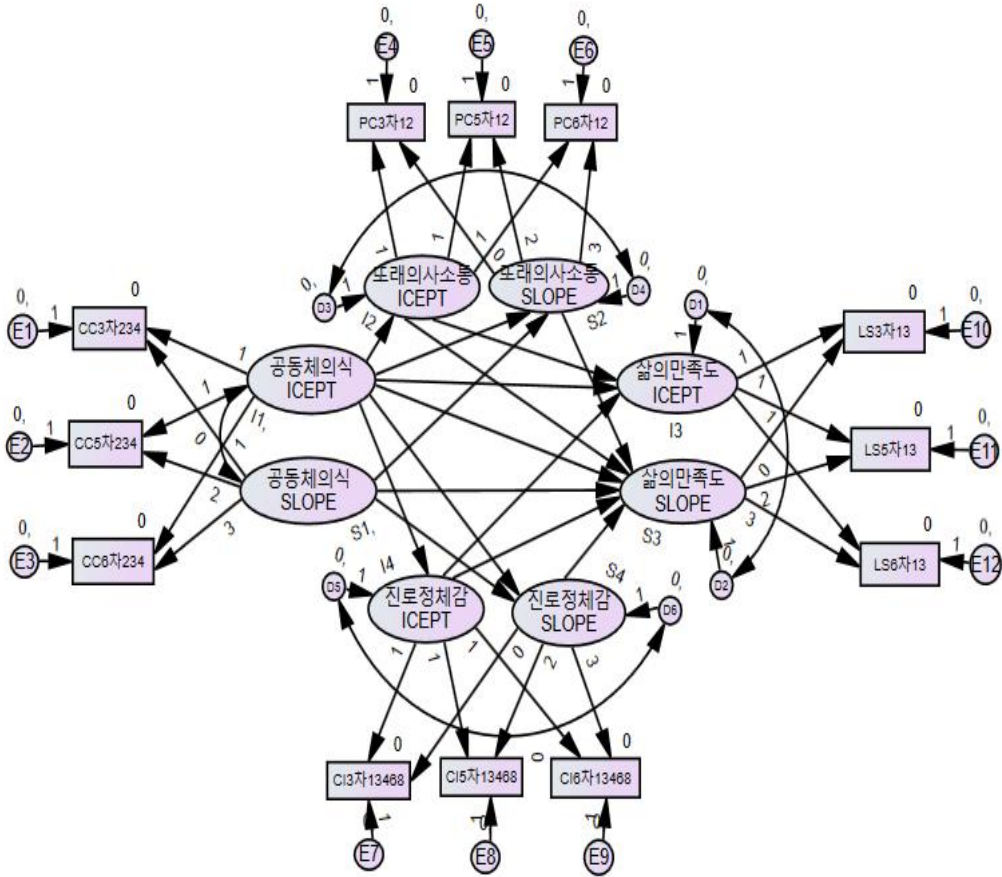
4)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이 성립되어 기울기(변화율)요인의 평균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기울기(변화율)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은 각 집단의 기울기를 똑같이 고정한 후 절편(초기값)요인의 평균동일성모형(모형B)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모형(모형B)와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모형(모형C)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기울기의 평균동일성 검증모형 C는 <그림 4-10>, 기울기의 평균동일성 적합도 지수비교는 <표 4-27>에 제시하였다.

<표 4-27>에서 절편 평균동일성 모형(모형B)와 기울기 평균동일성 모형(모형C)의 적합도 비교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들 모두 모형이 적합한 결과를 나타냈다.

절편 평균동일성 모형(모형B)와 기울기 평균동일성 모형(모형C)의 적합도 지수차이는 $\Delta TLI = -.009$, $\Delta CFI = -.009$, $\Delta RMSEA = .002$ 로 나타나 기울기 평균동일성 모형(모형C)의 적합도 지수가 절편 평균동일성 모형(모형B)에 비해 차이가 없으므로 기울기의 평균동일성이 성립한다.



<그림 4-10> 기율기의 평균동일성 검증모형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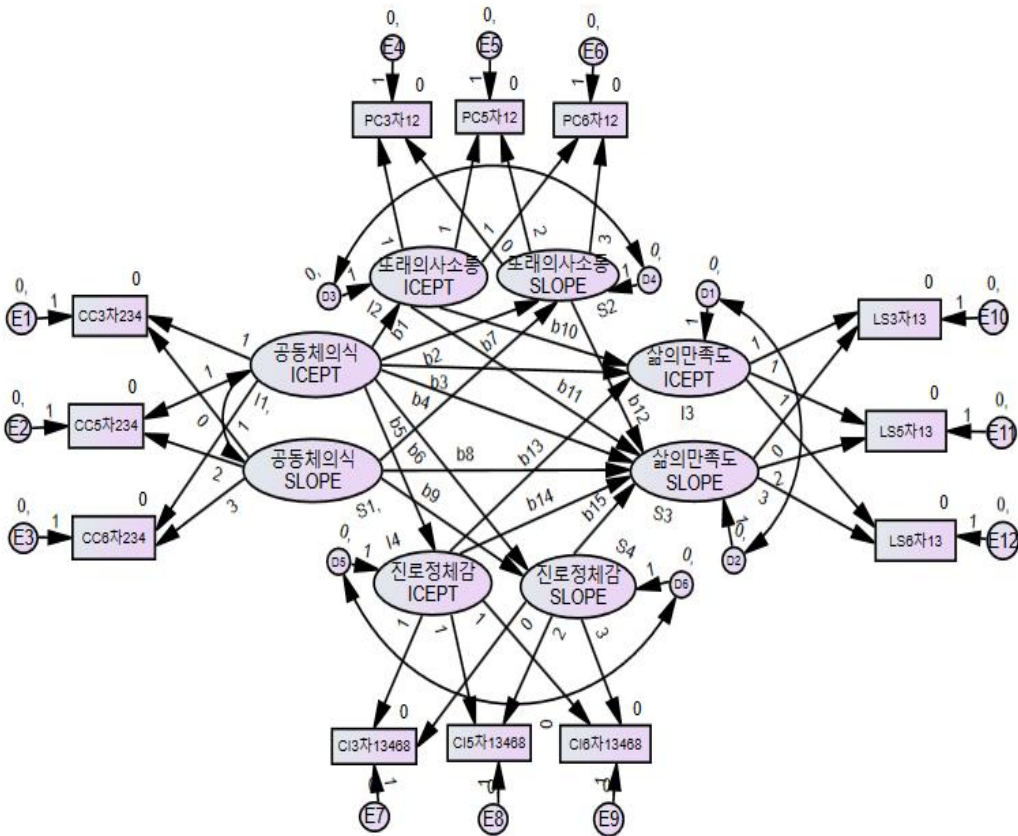
<표 4-27> 기율기의 평균동일성 적합도 지수비교

모형	적합도지수	χ^2 (p)	df	TLI	CFI	RMSEA
B	절편 평균동일성	414.641(.000)	90	.909	.938	.043
C	기율기 평균동일성	468.590(.000)	94	.900	.929	.045
지수 차이(Δ)				-.009	-.009	.002

5) 경로동일성 검증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이 성립되어 경로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경로 동일성 검증은 각 집단 간 경로를 동일하게 고정하여 제약을 가한 후 기울기(변화율)요인의 평균동일성 모형(모형C)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울기(변화율)요인의 평균동일성모형(모형C)와 경로 동일성모형(모형D)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경로동일성에 대한 검증모형 D는 <그림 4-11>, 적합도 지수비교는 <표 4-28>과 같다.



<그림 4-11> 경로동일성 검증모형 D

<표 4-28> 경로동일성 적합도 지수비교

모형	적합도지수	χ^2 (p)	df	TLI	CFI	RMSEA
C	기울기 평균동일성	468.590(.000)	94	.900	.929	.045
D	경로 동일성	538.144(.000)	109	.901	.918	.045
지수 차이(Δ)				.001	-.011	.000

<표 4-28>에서 기울기 평균동일성 모형(모형C)와 경로 동일성 모형(모형D)의 적합도 비교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들 모두 모형이 적합한 결과를 나타냈다. 경로 동일성 모형(모형D)의 적합도 지수는 TLI=.901, CFI=.918, RMSEA=.045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기울기 평균동일성 모형(모형C)와의 적합도 지수차이는 Δ TLI=.001, Δ CFI=-.011, Δ RMSEA=.000으로 나타났다. 경로동일성 모형(모형D)의 CFI적합도 지수가 기울기의 평균동일성 모형(모형C)에 비해 .01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 간 비교

<표 4-29>와 같이 경로동일성 제약모형의 집단비교 유의성검증 결과 남자집단과 여자집단 모두에서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에 유의수준 $P<.001$ 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의사소통 초기값과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유의수준 $P<.001$ 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집단과 여자집단 모두에서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과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에 유의수준 $P<.001$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수준 $P<.01$ 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 유의성 검증 결과는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진로정체감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또래 의사소통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5의 경로인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P < .01$) 나타났다.

<표 4-29> 경로동일성 제약모형의 집단비교 유의성검증 결과

경로	모델	남 B(β)	여 B(β)	P
공동체의식 초기값 → 또래의사소통 초기값	p1	.449(.587)***	.459(.506)***	.200
공동체의식 초기값 →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p2	-.004(-.019)	-.013(-.044)	.038
공동체의식 초기값 → 삶의만족도 초기값	p3	.103(.094)	-.111(-.111)	.086
공동체의식 초기값 → 삶의만족도 변화율	p4	-.041(-.116)	.022(.132)	.254
공동체의식 초기값 → 진로정체감 초기값	p5	.598(.490)***	.560(.380)***	.001
공동체의식 초기값 → 진로정체감 변화율	p6	-.012(-.032)	-.009(-.018)	.567
공동체의식 변화율 →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p7	.638(.783)***	.696(.584)***	.645
공동체의식 변화율 → 삶의만족도 변화율	p8	-.365(-.290)	.153(.225)	.186
공동체의식 변화율 → 진로정체감 변화율	p9	.842(.613)***	1.011(.496)***	.374
또래의사소통 초기값 → 삶의만족도 초기값	p10	.672(.469)***	.779(.711)***	.337
또래의사소통 초기값 → 삶의만족도 변화율	p11	.040(.085)	.005(.028)	.490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 삶의만족도 변화율	p12	1.088(.704)**	.576(1.007)**	.158
진로정체감 초기값 → 삶의만족도 초기값	p13	.237(.263)***	.288(.427)***	.471
진로정체감 초기값 → 삶의만족도 변화율	p14	.009(.030)	-.019(-.171)	.366
진로정체감 변화율 → 삶의만족도 변화율	p15	.287(.314)**	.136(.406)	.219

*** $p < .001$, ** $p < .01$, * $p < .05$

제4절 연구결과와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중단매개효과와 성별에 따른 집단비교검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 중1자료 3차년도(2012년), 5차년도(2014년), 6차년도(2015년)의 3개년 패널 데이터자료 중 삶의 만족도,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문항에 모두 응답한 1989명을 대상으로 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3.0과 AMOS 23.0을 활용한 다변량잠재성장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모형의 검증 시 모든 과정마다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잠재성장 모형은 중단연구를 위한 적절한 분석모형으로 단일 시점의 영향력만을 살펴보는 횡단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시점으로 변수 각각의 성장변화와 개인차를 모두 살펴볼 수 있으며, 변수 간 성장변화와 영향력 및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인 검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들을 결정하기위해 SPSS에서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AMOS에서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고 정규성을 확보하였으며 변수별 각 시점에 따른 평균변화를 살펴보았다.

넷째, 모형 별 적합도 검증 후 최종적인 잠재성장모형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모수를 추정하고 각 변수들의 성장변화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결정된 잠재성장모형으로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개발하고 적합성 검증 후 추정된 모수로 변수들 간의 관계와 변화를 확인하였다.

여섯째, 다변량잠재성장 모형의 간접매개효과검증을 실시하여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간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일곱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동일성 검증(형태 동일성 검증→절편의 평균 동일성 검증→기울기의 평균 동일성 검증→경로 동일성 검증)을 순서대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고 성별에 따른 집단 비교를 확인하였다.

검증과정에 따라 확인된 결과는 크게 4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로 구분하여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각각의 종단적 성장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각각의 성장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성장변화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 정체감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4. 공동체의식이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에,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1.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 설정과 성장변화

삶의 만족도,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각각의 종단적 성장 변화는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문제1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은 일차함수변화모형이 $RMSEA=.062$ (괜찮은 적합도), $TLI=.979$ (좋은 적합도), $CFI=.993$ (좋은 적합도)를 보여 일차함수변화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이 3.002, 변화율이 .01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1년에 초기값 3.002에 .015만큼 변화하며 초기 삶의 만족도의 수준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인 $-.021$ 로 나타나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초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성장의 변화속도가 완만히 이루어지고 초기 삶의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들은 성장의 변화속도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공동체의식의 잠재성장모형은 $RMSEA<.10$ 로 보통 적합도, TLI 와 CFI 는 $>.90$ 으로 가장 적합도가 좋은 일차함수 변화모형을 선택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2.790, 변화율이 .049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1년

에 초기값 2.790에 .049 만큼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초기 공동체의식의 수준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또래의사소통의 잠재성장모형은 RMSEA<.08로 괜찮은 적합도, TLI와 CFI는 >.90 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가장 적합도가 좋은 일차함수 변화모형을 선택하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이 3.083, 변화율이 .02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1년에 초기값 3.083에 .027만큼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초기 또래의사소통의 수준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이 -.023으로 나타나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초기 또래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성장의 변화속도가 완만히 이루어지고 초기 또래의사소통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성장의 변화속도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은 RMSEA=.068(괜찮은 적합도), TLI=.975(좋은 적합도), CFI=.992(좋은 적합도)를 나타낸 일차함수 변화모형을 선택하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모수를 추정한 결과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이 2.927, 변화율이 .025로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1년에 초기값 2.927에 .025만큼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초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변화율이 -.0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성장의 변화속도가 완만히 이루어지고 초기 진로정체감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성장의 변화속도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진로정체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1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는 <표 4-30>에 제시하였다.

<표 4-30> 연구문제 1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각각의 종단적 성장변화는 어떠한가?	
	가 설	검증결과
가설 1.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1.1-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지
1.1-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지지
가설 1.2.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1.2-1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지
1.2-2.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지지
가설 1.3.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래의사소통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1.3-1.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래의사소통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지
1.3-2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래의사소통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지지

	가 설	검증결과
가설 1.4.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정체감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1.4-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정체감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지
1.4-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정체감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지지

2. 다변량잠재성장모형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성장변화에 따른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변량 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 .08$, $TLI > .90$, $CFI > .90$ 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그에 따른 경로계수를 추정된 결과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 ($P < .001$) 정적인 영향($\beta = .552$)을 미쳤으나 변화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진로정체감 초기값에($\beta = .419$) 매우 유의미하게 ($P < .001$)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변화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 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하게 ($P < .001$) 정적인 영향($\beta = .685$ / $\beta = .545$)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에 초기 공동체의식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또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변화에 공동체의식의 변화가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의사소통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김문수, 201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beta=.584$)을 미치고 있으나 변화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미하게($P<.01$) 정적인 영향($\beta=.750$)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또래의사소통이 초기 삶의 만족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청소년들이 중3에서 고3까지 성장하는 동안 또래의사소통의 변화가 삶의 만족도 변화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또래의사소통의 성장변화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의 성장변화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의사소통이 포함된 또래애착이 강할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졌다는 선행연구들(박미려·양은주, 2017; 황매향·최희철·임효진, 2016; 조진만·강정환·이병규, 2012)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beta=.347$)을 미치고 있으나 변화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진로정체감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beta=.325$)을 미치고 있다. 이는 초기 진로정체감이 초기 삶의 만족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청소년들이 중3에서 고3까지 성장하는 동안 진로정체감의 변화가 삶의 만족도 변화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진로정체감의 성장변화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의 성장변화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서희정·윤명희, 2018; 박미려·양은주, 2017; 안지혜 외, 2016)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삶의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보경, 2017)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연구문제 2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는 <표 4-31>에 제시하였다.

<표 4-31> 연구문제 2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연구문제 2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각각의 성장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성장변화관계는 어떠한가?	
	가 설	검증결과
가설 2.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1-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1-3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2-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2-3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 설	검증결과
가설 2.3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3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4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1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4-2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4-3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5	진로정체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1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5-2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5-3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3.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매개효과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 정체감의 종단매개 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문제3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또래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363으로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미하였으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은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초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초기 또래의사소통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초기 또래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초기 삶의 만족도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 초기값과 변화율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005로 부적영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공동체의식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588로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미하였으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은 공동체의식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동체의식의 변화수준이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또래의사소통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의 변화수준이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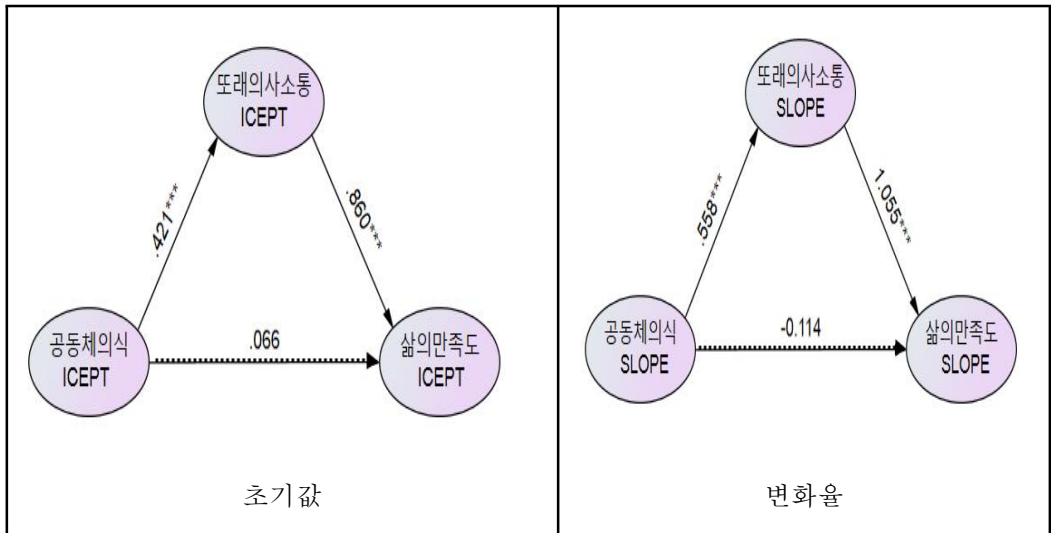
본 연구의 결과는 횡단연구를 통해 또래관계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한 기존 연구(이선경, 2018)와 같이 청소년에게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동

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의 완전매개효과를 중단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변화의 폭이 큰 청소년시기에 일정한 시점에서만이 아닌 청소년시기동안 또래의사소통의 개입이 꼭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검증결과는 <표 4-32>, 또래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검증결과는 <그림 4-12>에 제시하였다.

<표 4-32>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검증결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공동체의식초기→또래의사소통초기→삶의만족도초기	.428**	.066	.363**
공동체의식초기→또래의사소통초기→삶의만족도변화			
공동체의식초기→또래의사소통변화→삶의만족도변화	-.018	-.013	-.005
공동체의식변화→또래의사소통변화→삶의만족도변화	.475**	-.114	.588**



<그림 4-12> 또래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2)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 초기값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181로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미하고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직접효과가 .267로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관계를 부분매개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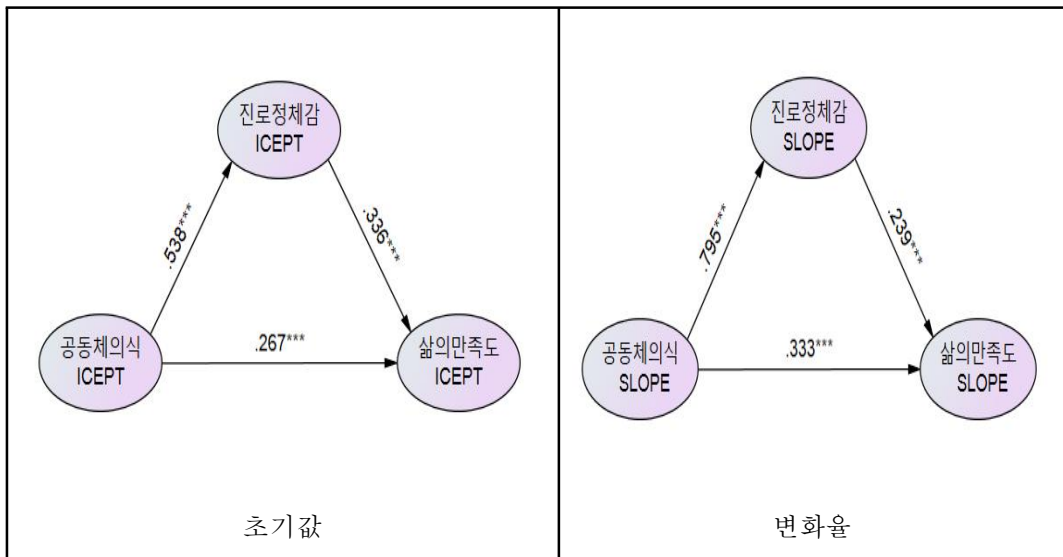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 초기값과 변화율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005로 부적영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공동체의식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 변화율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190으로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미하고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직접효과가 .333으로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진로정체감 변화율은 공동체의식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검증결과는 <표 4-33>와 <그림 4-13>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3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표 4-34>와 같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이 낮을지라도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개입과 수준의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33>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검증결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공동체의식초기→진로정체감초기→삶의만족도초기	.448**	.267**	.181**
공동체의식초기→진로정체감초기→삶의만족도변화			
공동체의식초기→진로정체감변화→삶의만족도변화	-.026	-.021	-.005
공동체의식변화→진로정체감변화→삶의만족도변화	.523**	.333**	.190**



<그림 4-13>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표 4-34> 연구문제 3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연구문제 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중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 설	검증결과
가설 3.1	공동체의식은 또래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3.1-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1-3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1-4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3.2	공동체의식은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3.2-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2-3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2-4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4.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 간 비교

<표 4-3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는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문제 4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녀 집단 간 비교분석을 위해 측정 모형의 형태동일성,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 경로 동일성에 대한 순차별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남자집단과 여자집단 모두에서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에 유의수준 $P<.001$ 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또래의사소통, 초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 집단 모두 또래의사소통 초기값과 진로정체감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유의수준 $P<.001$ 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또래의사소통과 초기 진로정체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초기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래와의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고 진로정체감의 형성이 빠른 청소년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남자집단과 여자집단 모두에서 또래의사소통 변화율과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에 유의수준 $P<.001$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4년간 성장하는 동안 공동체의식의 변화가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와 진로정체감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공동체의식의 성장변화가 클수록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성장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은 남 여 집단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수준 $P<.01$ 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의사소통의 성장변화가 삶의 만족도 성장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또래의사소통의 성장변화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의 성장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별 차이 유의성 검증 결과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진로정체감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하게($P<.01$) 남 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초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집단비교분석 결과 남 여 공통으로 초기 공동체의식이 높은 청소년들은 초기 또래의사소통과 초기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고 초기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의 성장변화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성장변화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 공동체의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동시에 초기 공동체의식이 초기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에 유의성이 검증된 결과 남녀 모두 초기 공동체의식의 수준과 초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 초기진로정체감 형성에 있어서의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남녀 인식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성장과정에서의 놀이기구는 개인별 선호도와 더불어 주변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선택된다. 개인별 선호도와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인식이 같을 경우에는 강화가 되지만 다를 경우에는 소거가 될 수도 있다. 여자아이가 인형보다 레고나 차를 원하는 경우 주변의 반응에 따라 강화 또는 소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여자아이는 자신의 선호도가 일반적이지 않음을 알고 다른 놀이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아이는 자신의 선호도와 다른 선택에 의해 좌절의 경험을 갖게 되지만 레고나 차를 원했던 남자아이는 대부분 주변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지지받고 강화되어 자신의 관심과 호기심을 놀이기구를 통해 성장하고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미래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4-35> 연구문제 4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연구문제 4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에,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가 설	검증결과
가설 4.1	공동체의식이 또래의사소통에, 또래의사소통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4.2	공동체의식이 진로정체감에,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제 5 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중단매개효과와 성별에 따른 집단비교검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 자료를 활용하고 표본으로 선택된 청소년 1989명(남 1008명, 여 981명)을 대상으로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무변화 모형, 일차함수변화 모형을 비교검증 후 최종 선택된 일차함수변화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최종 선택된 일차함수변화 모형들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의 매개효과분석은 각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와 인과적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랩(bootstrap)방식을 사용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 집단비교분석은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을 위해 형태동일성 검증, 절편 평균동일성 검증, 기울기 평균동일성 검증, 경로 동일성 검증을 순차적으로 적합도 비교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만족도,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모두 무변화모형과 적합도 비교 후 최종적으로 일차함수 선형변화모형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들 모두 초기수준에 있어 개인차가 있고, 안정적으로 성장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동체의식을 제외한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은 초기값과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여 초기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성장변화속도가 완만히 이루어지고 초기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성장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 초기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의사소통 초기값과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3 시기 공동체의식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고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3부터 고3까지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동안 공동체의식의 성장변화가 클수록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성장변화가 크며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성장변화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의 성장변화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은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으며,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또한 공동체의식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다.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고, 진로정체감 변화율 또한 공동체의식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성별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집단별 차이 유의성 검증 결과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진로정체감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하게($P < .01$) 남 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초기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초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개인내적요인인 진로정체감과 개인외적요인인 또래의사소통의 중단매개효과분석과 집단비교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자료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종단 분석을 시도하여 기존의 횡단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횡단분석은 연구자의 일방적인 관계설정으로 인한 영향력만을 살펴보지만 종단분석은 한 특정시점에서의 영향만이 아닌 개인적인 성장변화와 더불어 다년간에 걸친 변수들 간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고, 오랜 시간동안 형성되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관계에 관하여 횡단연구의 한계를 보완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자료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중단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완전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의의를 갖는다.

셋째, 성별에 따른 집단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청소년들과 여자청소년의 성별차이가 나타나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자료로 의의를 갖는다.

넷째,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통합한 통합이론에 근거하여 개인내적요인인 진로정체감과 개인외적요인인 또래의사소통의 중단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통합이론의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자료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다섯째, 본 연구는 공신력 있는 종단자료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자료를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일반화 적용 근거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2.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실천적 시사점

본 연구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실천적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향상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므로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체험활동 및 상담활동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개인이거나 그룹을 형성하거나 그들이 필요한 시점과 장소에서 원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카페와 같은 자유로운 공간의 제공과 더불어 청소년 센터에서의 체계적인 활동시간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또래의사소통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검증된 결과에 근거하여 중요성이 부각된 바 또래의사소통향상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솔리언 또래상담을 확장하여 또래 상담자들의 인력확보와 더불어 심리학 수업과 연동된 정규적인 상담시간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적으로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솔리언 또래상담자 교육은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정한 자격제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누구나 또래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또래 상담자를 활용하여 또래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리학 수업과 연동된 정규적인 상담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상담시간은 교

실수업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학교 안에서의 자유로운 수업을 권장하고자 한다.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또래의사소통을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공부와 직업 등 다양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 결과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고 공동체의식의 성장변화율이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성장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동체의식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내 한정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활동과 프로그램들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므로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기관별 협의 하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수련활동, 진로활동, 상담활동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3학년 시기에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고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년간 성장하는 동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적 정책으로 현재 중학교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실시를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실시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의 청소년정책에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실시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한 진로체험활동이 중학교 과정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형성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체험활동들이 초등학교과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프로이드의 심리성적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에너지가 친구에게로 향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에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체험활동의 교육 위주로 전환 시 높은 수준의 공동체의식의 형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시점이 중3부터 고3까지 심리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시기이고 진로정체감이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는 본 연구의 검증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의 향상을 위해서 심리학수업을 중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기를 제언한다. 이는 심리학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정규적인 수업으로 진행되었을 때 심리학은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초학문으로서 정체감 형성시기인 청소년기에 정체감 혼란과 유예에서 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학문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활동에 관하여 일관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시스템 정착을 위한 일원화된 정부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이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18세미만의 아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정책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아동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립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중 어느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여 아동이자 청소년인 동일한 대상들에 대한 일관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향후 연구방향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또래의사소통의 종단매개효과분석과 집단비교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자료가 공신력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패널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한 한계점이 있다.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경우 2013년 4차년도 자료에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변수들 간 지속적인 영향력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달영역과 환경영역을 조사한 방대한 종단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종단연구를 설계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차후 조사 설계 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자료 조사시점이 고3시기 청소년들의 경우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의 시점인 관계로 삶의 만족도의 높은 변화율은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는 시험 전 고3과 시험 후 고3의 심리상태는 무척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시험 직전의 고3에게 삶의 만족을 물었다면 시험 후 고3 삶의 만족도 결과와 무척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차후 조사시점을 설정할 때 청소년들의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닌 심리적인 시간도 고려한 조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중3, 고2, 고3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초기, 중기, 후기청소년들의 성장변화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차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선행이론에 근거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연구자에 의한 회귀경로를 설정한 횡단 연구들로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의 경우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많아 경로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시간적 우선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으로 분석한 후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한다면 보다 더 좋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가영선(2015). 중학생의 개인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변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가영·장유미(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강윤아(2018). 부모 및 자녀 삶의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인과관계 분석: 잠재성장모형, 잠재계층분석, 잠재전이분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인경·김춘경(2016).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교육심리연구, 30(2), 411-428.
- 고상미(2000).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혜(2015).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영(2012).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부모양육태도와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인규(2008). Holland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진로효능감, 진로정체감 및 진로장애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영직(2018). 『과학자의 철학노트: 철학이 난감한 이들에게』. 서울: MID엠아이다.
- 구재선·김의철(2006). 한국인의 행복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12(2), 77-100.
- 구지윤·김유나(2016).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

- 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8), 287-309.
-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윤정(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 정체감의 매개효과 및 비행경험의 조절효과.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혜원(2003). 중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영락·임성택(2010). 전문계 고등학생의 부모관계와 진로성숙도 및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29(1). 63-80.
- 김계수(2009). 『잠재성장모델링과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관호(2017). 진로정체감, 동기조절, 학업성취, 삶의 만족간의 관계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남정·임영식(2012).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동욱·손원숙(2014). 초등학생의 미래지향적 목표와 진로성숙도 및 교과 성취도의 관계: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7(3). 1-26.
- 김동하(2014). 가구소득, 부모우울, 청소년 공격성 간의 종단적 상호교류관계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2017).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간의 종단적 관계: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수(2014). 청소년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연향에 관한 연구: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4(2), 36-64
- 김미주(2011).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12). 청소년의 부모관여방식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2017). 청소년의 삶의 목표, 삶의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 · 장은비(2015).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통한 또래애착과 성취가치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22(7), 31-52.
- 김상미 · 남진열(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선숙 · 안재진(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선아(2018). 중학교에서 고3까지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학습활동과 삶의 만족도 관계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12), 507-514.
- 김소영 · 윤기봉(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271-296.
- 김신경 · 박민경 · 안지선(2014).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행동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163-182.
- 김신영 · 임지연 · 김상욱 · 박승호 · 유성렬 · 최지영 · 이가영(2006). 『한국 청소년발달지표조사: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신정 · 김성희(2012).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13(3), 1425-1441.
- 김양희(2018). 사회참여학습이 공동체의식과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임 · 최현철(2009).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우리 · 박영희 · 김정섭(2014). 중학생의 기본심리 욕구,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8(2), 333-352.
- 김윤희 · 김현숙(2016).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성별 및 애착 관계의 영향. 상담학 연구, 17(3), 337-354.
- 김은미(2003).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의사소통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김민규·진영재(2008). 미디어이용이 후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연구-잠재성장모형을 통한 17대 대선 패널 데이터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6-107.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진아(2016).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 간의 중단적 관계. 상담학연구, 17(2), 303-326.
- 김태균·오승근(2015).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중단연구. 제5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374-384.
- 노경섭(2016). 『체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21』. 서울: 한빛아카데미.
- 노소영(2017). 중·고등학교 시기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소영·유난숙(2018).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 30(2), 21-37.
- 류승아(2016). 청소년들의 과거 비행피해 경험과 공동체 의식이 정서 및 신체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연구. 청소년학연구, 23(11), 87-111.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661-667.
- 문은식(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22(1), 21-35.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 관광부.
- 박미려·양은주(2017). 부모방임,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263-284.
- 박민하(2017).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정체감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서호(1993).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공동체의식 함양 방안』. 서울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 박수원 · 김셋별(2016).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중단적 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5-32
- 박재숙(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의 관계. 한국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지영 · 정현숙(2016). 남녀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
는 영향: 학업성취도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6(1), 21-37.
- 박현정 · 김진옥 · 손윤의(2015).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의 중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6(4), 105-127.
- 박희서 · 김구(2006).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비엔엠북스.
- 배병렬(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성경주 · 김재철(2017).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
회귀교차 지연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4(8), 383-406.
- 손성화(2018). 지적장애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기본심리욕구,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수경 · 이현정 · 홍세희(2017).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8(3), 57-88.
- 손연아 · 신수지 · 손은령(2014).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연구.
진로교육연구, 27(1), 109-125.
- 송대영(2007). 『인간관계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송대영 · 최현섭(201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송은영(201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화(2011). 다층모형을 적용한 학생 행복의 설명요인 탐색. 전북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송현주 · 황순택(2016).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간의 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중단자료의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8(4), 25-46.
- 신인순 · 강현주 · 정평화(2014).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

- 술대회 자료집. 215-230.
- 심정보(2008). 『민주화이후의 공동체교육』. 서울: 도서출판 살림터.
- 아영아·김진영(2018).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종단 영향. 청소년상담연구지, 26(1), 47-66.
- 안수영·이형실(2009).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1(3), 163-176.
- 안지혜(2016).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혜·윤유동·임희석(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중학생 삶의 만족도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4(2), 197-208.
- 안효자·이영내·권윤희·김명자·김미진·김정윤·김조필·김효정·박향진·송민선·송지현·양수정·유성자·조금이·최숙희공저(2018).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파주: 수문사.
- 오민아·조혜영(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동체 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연구-성취가치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1), 125-137.
- 오승아·유준호(2017).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 청소년 활동,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아동교육, 26(3), 207-222.
- 위유라·노충래(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유경훈(2013).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700-2706.
- 유수필(2008).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이·황매향·김지현(2005). 진로정체감 검사의 중고등학생 규준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13(2), 101-114.
- 이기정·김영식(2015). 청소년의 학교폭력 집단 유형과 삶의 만족도 자존감간의 관계 분석 연구. 교육과학연구, 46(2), 57-77.

- 이기종(2012). 『구조방정식 모형: 인과성·통계분석 및 추론』. 국민대학교 출판부, 개정판.
- 이보람·박혜준(201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0-191.
- 이상희·신상수(2012). 진로선택에서의 우연요인에 대한 대학생의 개념도 분석. 인간이해, 33(1), 1-20.
- 이선경(2018).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영(2017). 진로정체감과 교사의 사회적지지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천·이재용(201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 보건과 복지, 19, 45-67.
- 이순성(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종단적 추이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신아라·김선경·이용택(2017). 청소년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종단연구. 청소년문화포럼, 50, 91-112.
- 이용택·곽현·이은경(2016). 청소년의 체험활동만족 및 참여수준과 삶의 만족에 대한 종단연구. 청소년학연구, 23(2), 345-370.
- 이정민·정혜원(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변화와 체험활동의 시간효과. 중등교육연구, 65(3), 573-599.
- 이지혜(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자기결정성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연구, 13(3), 133-154.
- 이현정·손수경·홍세희(2018).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 학습활동 및 교우관계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9(1), 209-238.
- 이현철·최성보(2012).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 종단 분석. 사회과학연구, 51(2), 159-187.
- 이혜주·정의현(2018).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의 연차별 추이 분석. 아동교육, 27(1), 199-214.

- 이희선 · 선우현정(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 자아정체감, 부모의 방임. *청소년학연구*, 22(6), 57-73.
- 인효연 · 길혜지(2017).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삶의 만족도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25-49.
- 임선아(2013). 진로정체감이 성취목표, 몰입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경로분석. *청소년학연구*, 20(1), 47-6
- 임종필(2017).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 환경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명옥(2017). 초등학생의 독서봉아리 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소영(2012).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이 초기 청소년의 행복감과 공동체의식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정 · 정혜원(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215-242.
- 정득 · 김은수 · 이종석(2016).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7(4), 259-289.
- 정운화 · 봉초운 · 홍세희(2018).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5(1), 181-210.
- 정은주(2015).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보고*.
- 조명한 · 김정오 · 권석만(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 조성연 · 김민 · 김혜원(2011). 부모와 초등학생이 지각한 공부압력, 성공압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및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1), 47-67.
- 조성연 · 김혜원 · 김민(2011).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9(3), 87-98.
- 조성희 · 박소영(2015).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초기 청소년

- 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3(4), 801-818.
- 조재운·서수현(2018).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또래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인식하는 갈등 조사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9), 887-909.
- 조진만·강정환·이병규(2012). 가족구조와 친구연결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논집, 43(1), 47-71.
- 조한익·김영숙(2016).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구조관계. 교육심리연구, 30(4), 783-810.
- 주계순(2017).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원(2017). 청소년 전환기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에 대한 종단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유선·손은령(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 최형입·문영경(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189-209.
- 하성민(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김혜원·설인자·임영식·조아미·한상철(2004). 『청소년심리학』. 서울 :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7차 유저 가이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7차 조사 데이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7차 조사 코드북.
- 한영수·송원영(2012). 또래에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제1차 학술대회 자료집.
- 한은영·김미강(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회, 43, 95-124.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양한 모형』. 서울: 에스엔엠 리서치 그룹.

황매향 · 최희철 · 임효진(2016). 청소년기의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3), 195-220.

황재원 · 김계현(2009). 상담일반: 대학생의 행복추구경향과 주관적 안녕감과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0(1), 57-71.

교육부(2019.04.24).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740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

문음미(2019.03.05). 청소년이 만드는 전주형 창의교육, 야호학교로 모여라. 중부뉴스통신

<http://m.jungb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168#0AE9>

박종일(2019.03.26.) 강남구, 스마일 학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심리안정 도와.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32606462092639>

이대희(2019.05.01). [2019청소년] 중고생 27% "슬픔·절망 느꼈다". 여학생은 33%가 경험.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01120032145>

최은서(2019.03.11).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청소년수련활동 본격 개시.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503086>

통계청여성가족부(2019).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74490_1&rs=/assist/synap/preview

< 외국문헌 >

- Aroan, L. A. (1947). The probability function of the product of two normally distributed variables. *The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 265-271.
- Austin, J. T., & Vancouver, J. F. (1996). Goal construction in psychology: Structure, process, and content. *Psychological Bulletin*, 120, 338-37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ntley, J. P., Brown, C. J., McGwin, G., Sawyer, P., Allman, R. M., & Roth, D. I., (2012). Functional status, life-space mobility, and quality of life: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Quality of Life Research*, 22(7), 1621-1632.
- Bishop, J. A., Inderbitzen, H. M. (1995).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4), 476-489.
-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96-202.
- Brief, A. P., Butcher, A. H., George, J. M., & Link, K. E. (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4), 646.
- Brown, B. B. (1996). Visibility, vulnerability, development, and context: Ingredients for fuller understanding of peer rejec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6, 27-3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Sage.
- Cantor, N., & Sanderson, C. A. (1999). Life task participation and well-being: The importance of taking part in daily life. In D. Kahneman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 of hedonic psychology* (pp.230-243).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Chavis, D. M., & Wandersman, A. (1990).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55-81.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233-255.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for the behavioral science*, 2n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ole, D. A., & Maxwell, S. E. (2003). Testing mediational models with longitudinal data: questions and tips in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 558-577.
- Collins, W. A., & Repinski, D. J. (1994).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personal perspective.
- Costa, P. T., Jr., & McCrae, R.(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Craig, C. C. (1936). On the frequency function of xy . *The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 7(1), 1-15.
- Curran, P. J. (2000). A latent curve framework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adolescent substance use. In Rose, J. S., Chassin, L., Prsson, C. C., & Sherman, S. J. (Eds). *Multivariate applications in substance use research : new methods for new question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42.
- Curran, P. J., Bauer, D. J., & Willoughby, M. T. (2004). Testing main effects and interactions in latent curve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9(2), 220.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93, 542-575.
- Diener, E., Sandvik, E., & Pavot, W.(1991). Happiness is the frequency, not the intensity, of positive versus negative affect.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21, 119-139.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Oishi, S., & Lucas, R. E. (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403-425.
- Diener, E., & Fujita, F.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Duncan, T .E., Duncan, S. C., A. L., Li, F., & Alport, A. (1999).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Duncan, T. E., Duncan, S. C. & Strycker, L. A. (2006). *An Introduction to*

-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Lawrence Erlbaum.
- Efron, B. (1979). Bootstrap methods: Another look at the Jackknife. *Annals of Statistics*, 7, 1-26.
- Efron, B. (1981). Nonparametric estimates of standard error: the jack-knife, the bootstrap, and other method, *Biometrika*, 68, 589-599.
- Efron, B., & Tibshirani, R. J. (1993). *An introduction to the bootstrap*. NY: Chapman & Hall.
- Emmons, R. A. (1992). Abstract versus concrete goals: Personal striving level, physical ill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92-300.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eist, G. J., Bodner, T. E., Jacobs, J. F., Miles, M. Tan, V. (1995). Integrating Top-Down and Bottom-Up Structural Models of Subjective Well-Be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1), 138.
- Ford, M. E. (1992). *Motivating humans: Goals, emotions, and personal agency belief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Fritz, M. S., Mackinnon, D. P. (2007). Required Sample Size to Detect the Mediated Effect. *Psychological science*, 18(3), 233-239.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Gauze, C., Bukowski, W. M., Aquan-Assee, J., & Sippola, L. K. (1996). Interactions between family environment and friendship and associations with self-perceived well-being during early adolescence.

- Child Development, 67, 2201-2216.
- Harter, S. (1986). Processes underlying the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the self-concept in children.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3(13), 7-181.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1980). *My vocational situation: Description of an experimental form for the selection of vocational assistanc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lland, J. L.,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91 - 1200.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 Hseem C, K., & Abelson, R. P. (1991). Velocity relation: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the first derivative of outcome over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341-347.
- Huebner, E. S. (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3-33.

- Lazarus, R. S. (1981).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C. E. Eisdorfer, D. Cohen, A. Kleinman, & P. Maxim(Eds), *Models for clinical psychopathology*(pp.177-214). New York: S. P. Medical & Scientific Books.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ung, C. Y. W., McBride-Chang, C. & Lai, B. P. Y. (2004). Relations among maternal parenting style, academic competence, and life satisfaction in Chinese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2), 113-143.
- Little, T. D., Preacher, K. J., Selig, J. P., & Card, N. A. (2007). New developments in latent variable panel analyses of longitudinal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4), 357-365.
- Lockhart, G., MacKinnon, D. P., & Ohlrich, V. (2011). Mediation analysis in psychosomatic medicine research. *Psychosomatic medicine*, 73(1), 29.
- Lucas, R. E., Diener, E., Grob, A., Suh, E. M., & Shao, L. (2000). Cross-cultural evidence for the fundamental features of extrover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452-468.
- Lyubomirsky, S., & Ross, L. (1997). Hedonic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a contrast of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141-1157.
- MacCallum, R. C., Roznowski, M., & Reith, J. (1994). Alternative strategies for cross-validation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9, 1-32.
- MacCallum, R. C., Kim, C., Malarkey, W. B., & Kiecolt-Glaser, J. K. (1997). Studying multivariate change using multilevel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2, 215-253.
- Mackinnon, D. P. (2008). *Introduction to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Mahwah, NJ: Erlbaum.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Adelson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Mason, W. (2001). Self-esteem and delinquency revisited(again): a test of Kaplan's self-derogation theory of delinquency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1), 83-102.
- McArdle, S., Waters, L., Briscoe, J., & Hall, D. (2007). Employ ability during Unemployment: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and human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247-264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elgosa, J. (198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occupational identit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10, 385-395.
- Meredith, W., & Tisak, J. (1990). Latent curve analysis. *Psychometrika*, 55(1), 107-122.
- Michalos, A. C. (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 (MD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4), 347-413.
- Muthén, B., Kaplan, D., & Hollis, M. (1987).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data that are not missing completely at random. *Psychometrika*, 52(3), 431-462.
- Neugarten, B. L., Havghur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 Newsom, J. T. (2015). *Longitud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Routledge. 171, 185-188, 193, 221-223.
- Park, N. (2005).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children and youth: A developmental perspectiv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6(2), 209 - 223.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 717 - 731.

- Reich, S. M. (2010).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on MySpace and Facebook: A mixed-methods approac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6), 688-705.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Ryff, C. D. (1997). Experience and well-being: Explorations on domains of life and how they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 193-206.
- Sarason, S. B. (1974).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chneider, S. (2001). In search of realistic optimism: Meaning, knowledge, and warm fuzziness. *Journal of American Psychologist*, 54, 250-263.
- Sedikides, C. (1993). Assessment, enhancement, and verification determinants of the self-evalua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317-338.
- Seltzer, V. C. (1989). *The psychosocial worlds of the adolescent: Public and Private*. New York: Wiley.
- Sheldon, K. M., & Kasser, T. (1995). Coherence and congruence: Two aspects of personality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31-543.
- Singer, J. D., & Willett, J. B. (2003). *Applied longitudinal data analysis: Modeling change and event occurrence*.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tone, W. L. & Lemanek, K. L. (1990). Parental report of social behaviors in autistic preschooler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0(4), 513-522.

- Sullivan, H.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Super, D. E. (1963). Self-concepts in vocational development. In D. E. Super (Ed.),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pp. 1 - 16).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Brown , D., & Brooks, L.(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 197-26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Tiede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Vondracek, F. W., & Skorikov, V. B. (1997). Leisure, school, and work activity preferences and their role in vocational identity develop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4), 322-340.
- Walsh, J. L., Senn, T. E., Scott-Sheldon, L. A., Vanable, P. A., & Carey, M. P. (2011). Predicting condom use using the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IMB) model: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The Society of Behavioral Medicine*, 42, 235-244.
- Wickrama, K. A., Lee, T. K., O'Neal C. W., & Lorenz, F. (2016). *Higher-order growth curves and mixture modeling with mplus: A practical guide*. New York: Routledge.
- Wilson, W.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4), 294-306.
- Yim, B. D. & Hibbard, D. (1996). Are There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Influence of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Friends on Adjustment During Early Adolescenc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Boston, USA.

부록 1.

설 문 지

중1패널 제1차 조사 (2012년 중3)

- 청소년용 조사표 -

1. 학생의 성별에 해당하는 번호에 v 해주세요.

- ① 남자() ② 여자()

2. 학생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v 해주세요.

<삶의 만족도 척도>

번호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사는 것이 즐겁다	1	2	3	4
2	나의 걱정거리는 별로 없다	1	2	3	4
3	내 삶은 행복하다	1	2	3	4

3.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학생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v 해주세요.

<공동체의식 척도>

번호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1	2	3	4
2	공휴일이라도 복지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1	2	3	4
3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1	2	3	4
4	쓰레기 분리수거, 물자절약,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를 보호할 것이다.	1	2	3	4

4. 학생자신의 친구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v 해주세요.

<또래의사소통 척도>

번호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이야기를 나눌 때 친구들은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1	2	3	4
2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준다.	1	2	3	4
3	나는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과 문제를 이야기한다.	1	2	3	4

5. 학생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v 해주세요.

<진로정체감 척도>

번호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미래에 꼭 하고 싶은 직업분야가 있다	1	2	3	4
2	내가 원치 않는 전공학과를 부모님이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1	2	3	4
3	나는 미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1	2	3	4
4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1	2	3	4
5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나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1	2	3	4
6	현재 나는 좋아하는 직업분야가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1	2	3	4
7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직업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1	2	3	4
8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1	2	3	4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문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2012년 중3시기를 제1차 조사시점으로 설정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자료 중 2010년 1차 자료와 2012년 3차 자료 및 2017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7차 조사 코드북의 일부를 발췌하여 조사표를 재구성하였습니다.